



삼표의 더 높은 비상은  
 혼자가 아닌 함께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통해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열정의 에너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산천의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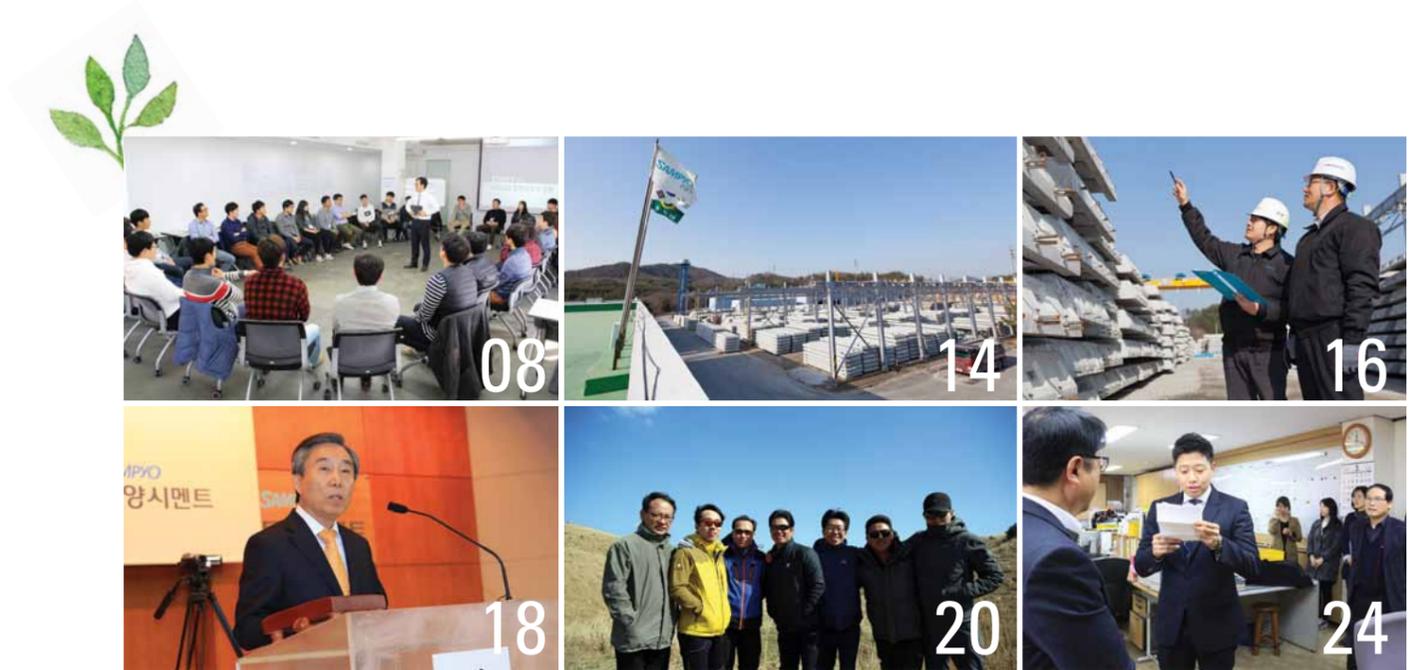
신영복

산천의 봄은 흙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옵니다.  
 얼음이 박힌 흙살을 헤치고 제 힘으로 일어서는 들꽃들의 합창 속에서 옵니다.  
 세상의 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박힌 불신이 사라지고 간혀 있던 역량이 해방될 때 세상의 봄은 옵니다.  
 산천의 봄과 마찬가지로 무성한 들꽃들의 아우성 속에서 옵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포용하면서 어김없이 옵니다.

제공\_ (처음처럼), 신영복 지음, 도서출판 들베개

## NEW LEADER, RECREATE, **SAMPYO**

〈삼표愛〉는 삼표그룹의 기업 철학과 사우들의 이야기를 담은 사내보입니다.



**SAMPYO NEWS** 04  
삼표그룹, 동양시멘트 VIP 초청행사 개최 외

**HOT! 이슈** 08  
2016년 첫 집합교육  
삼표그룹 신입 대리 역량 강화 과정을 동행하다

**성공열쇠** 12  
“선배 일이 너무 힘들어”

**현장 속으로** 14  
더 큰 목표를 향한 새로운 도약대  
삼표피앤씨 여주공장

**특별취재** 18  
동양시멘트 정기주주총회  
“새로운 백년대계를 세웁시다”

**소개합니다** 20  
지난 겨울을 한라산에서 떠나보내다  
삼표산악회

**오늘은 내가 쓴다** 24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신대원 골재영업팀 이현상 사원

**맛있는 발견** 26  
부산의 맛,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동양시멘트 부산영업팀 이원진 차장

**포토 이벤트** 28  
응답하라 19★★ 나의 학창시절

**건강 100세** 30  
아침 잘 먹고 5분만 운동하면 춘곤증이 싸워!

**지식 通** 32  
행복한 노후, 목돈 10억보다  
평생월급 500만원이 더 낫다

**트렌드를 말하다** 34  
당신도 원가를 만들어보라

**여행을 떠나요** 36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열린 편집실** 40  
독자 퀴즈

**사우동정** 41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www.sampyo.co.kr](http://www.sampyo.co.kr) (주)삼표 사보 '삼표愛'

2016년 봄호(Vol.50) 계간 비매물 • 발행인 정도원 • 발행처 (주)삼표 홍보팀  
 서울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15층 • 전화 02-460-7122 • 발행일 2016년 4월 8일  
 • 디자인 편집디자인실 외곽 02-3447-7601 • 인쇄 내인 02-2278-0773

주삼표



삼표그룹, 동양시멘트 VIP 초청행사 개최

삼표그룹은 1월 2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동양시멘트에 대한 레미콘 고객사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양시멘트 VIP 고객초청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길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사장, 정대현 부사장을 비롯해 이성연 삼표기초소재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VIP 고객 70여 명이 참석했다. 최병길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삼표그룹은 동양시멘트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면서 시멘트 사업 진출과 골재, 시멘트, 레미콘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이뤘다"며 "이 모두는 고객들의 성원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표그룹과 동양시멘트는 그동안 축적된 핵심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삼표그룹은 앞으로 우수고객에게 골재 및 분체의 성수기 물량 최우선 공급, 레미콘 수요 및 시장정보 제공 등 프리미엄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삼표그룹, 사내강사 심화과정 교육 실시

삼표그룹은 2월 25일 서울시 중구 수하동에 위치한 페럼타워에서 '사내강사 심화과정'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신입사원 입문교육, 승진자 교육, 부문별 직무교육 등 사내에서 교육 활동을 해왔던 기존 강사 및 신규 강사 총 2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 강의 설계하기 ▲ Multiple SPOT 기법 교육 (퀴즈,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기법) ▲ 스피치 스킬 (보이스 트레이닝, 표정, 눈 맞춤, 제스처) ▲ 질문 활용 방법 (질문을 통해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법) ▲ 강의 시연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됐다. 삼표 인사담당 최윤길 상무는 "우수한 사내 강사 한 명이 핵심인재 수백 명을 길러낼 수 있다"며 "지난해 사내강사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그룹 핵심 가치 및 실무 지식 전달 등 많은 강익이 이루어졌고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향후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사내 강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삼표그룹 팀장급 이상 관리자 안전체험교육 실시

삼표그룹은 지난 2월부터 팀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라파즈한라시멘트 옥계공장 안전체험센터에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삼표그룹 내 안전보건 문화 정착 및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계획됐다. 대상은 전 계열사 팀장급 이상 직원 389명으로, 오는 5월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안전 의식 고취 이룬 교육에 이어 안전벨트 착용 후 낙하 체험, 난청 방지 귀마개 착용을 통한 소음 차단 효과,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요령, 컨베이어 벨트 고장 시 에너지 차단 방법 등 체험 수업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진행한 삼표산업 환경안전팀 천노수 부장은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사업장 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길 바란다"며 "모든 임직원이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올해 사업장에서 무사고 달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표 IT부문, 무인 주유시스템 개발

삼표 IT부문은 지난 2월 무인 주유시스템을 개발해 동양시멘트 제2공장 및 다물제이호 49광구 주유기에 설치했다. 이 주유시스템은 주유원이 수동으로 주유하던 방식에서 운전자가 RF-CARD를 이용해 24시간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 재고관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차량용 계량기에 탱크로리 차량 입고 전후 중량을 자동 계산해 실 입고량을 도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입고관리도 가능하다. 주유탱크 내 센서를 통해 주유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에 따라 입고 재고관리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특정 재고 도달 시 자동으로 유류 담당자에게 SMS를 발송한다. 또한, 차량에 전자식 차량 운행 기록 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장비 차량에 소모된 유류 사용량을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표 시스템2팀 강성필 차장은 "무인 주유시스템은 정확한 데이터 관리와 차량의 주유관리에 객관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며 "주유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업무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삼표산업

삼표산업 레미콘 부문 '2016년 레미콘사업부 워크숍' 개최

삼표산업 레미콘 사업부는 1월 7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간 2차수에 걸쳐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청호인재개발원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레미콘사업부 전 임직원 470여 명이 참석했으며, 2015년도 실적 발표와 2016년 사업 계획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마음을 얻는 상생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이날에는 영업, 품질, 관리, 물류 부문으로 나누어 2016년도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각 사업부문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분임 토의를 진행했다. 흥성원 레미콘 사업부 대표이사는 "레미콘 사업부는 지난해에 출하량 등 다양한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올해도 전국 27개 레미콘 공장이 혼연일체가 되어 레미콘 업계 1위 자리를 고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삼표기초소재



**삼표기초소재 및 동양시멘트, 일본 DENKA社와 전략적 제휴**

삼표기초소재와 동양시멘트는 3월 11일 일본 특수시멘트 전문회사인 'DENKA社'와 기술정보공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DENKA가 생산 중인 60여 종의 특수시멘트 제품에 대한 기술 도입과 한국 내 사업화에 관한 것이다. 특수시멘트는 기존 시멘트 및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해 성능을 개선한 것으로 고강도 제품, 조기강도 발현 제품, 콘크리트 균열 방지 제품, 콘크리트 작업성 향상 및 기존 구조물의 보수 보강 재료 등으로 건설현장 전반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이성연 삼표기초소재 대표이사는 "DENKA사는 200여 종의 특수시멘트 제품을 생산하는 일본 최대 회사로 지난해 3조6,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경영핵심전략인 '품질 및 서비스 향상과 제품 다양화'를 특수시멘트 분야에서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삼표기초소재 당진 FA공장, 석문면사무소에 장학금 지급**

삼표기초소재 당진 FA공장은 1월 14일 당진시 석문면 면사무소에 지역사회발전기금 1억 원을 기탁했다. 기탁금은 (사)석문면개발위원회를 통해 석문면 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당진 FA공장은 석문면 내 경로당 난방비 교체 비용 1,000만 원도 지원했으며, 석문면 내 저소득 가정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매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성연 삼표기초소재 대표이사는 "공장이 위치한 석문면의 불우이웃과 다양한 계층을 돌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시멘트(주)



**동양시멘트, (사)부산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 기부물품 전달**

동양시멘트 부산공장은 2월 4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에서 (사)부산서구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에 종합과자선물세트 100박스를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관내 노인정 및 취약계층에게 지급됐다. 사랑의띠잇기봉사단후원회는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을 돌보기 위해 2008년에 결성됐다. 현재 동양시멘트 해운담당 한승룡 상무가 후원회의 이사를 맡고 있다.

정경민 동양시멘트 해운팀장은 "후원회가 결성된 2008년부터 설, 추석 명절을 맞아 정기적으로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사업장 관내 기부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봉사활동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삼척정월대보름제 기줄다리기 대회 상금 기부**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은 2월 22일 삼척정월대보름제 기줄다리기 대회에서 3위에 입상해 받은 시상금과 성금을 삼척시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한 금액은 시상금 300만 원과 3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바자회를 열어 모금한 93만5,000원 등이다.

대회에 참석한 업무지원팀 장천식 과장은 "지역 군부대팀 출전으로 우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전 직원이 단합된 힘을 발휘해 입상할 수 있었다"며 "삼표동양시멘트가 상금 전액을 삼척시에 기탁하기로 했다는 안내방송을 듣는 순간 우승에 버금가는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삼척기줄다리기는 바다 게(기)의 발처럼 보이는 47닥의 줄을 가지고 힘을 겨루는 민속행사로,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돼있다. 특히 올해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삼척시 내 기업 및 단체 24개 팀이 참여했다.



**동양시멘트, 폐기물 자원순환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동양시멘트는 3월 3일 강원도 삼척시와 '폐기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양시멘트는 삼척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하루 70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연료화 시설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건립하고, 삼척시는 행정지원 및 사업부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시설운영으로 생산된 제품은 전량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연료로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양시멘트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현재 삼척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삼척위생매립장에 매립 처리되고 있는데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삼척위생매립장 사용연한이 30년 이상 늘어났다"며 "매립장 하나를 짓는 데 약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므로 이에 대한 경제 효과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2017년 착공을 시작해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삼표그룹 대졸공채 신입사원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현장 투어**

지난 3월 25일 삼표그룹 대졸 공채 신입사원 22명이 동양시멘트 삼척공장을 방문했다. 삼척공장장 한상옥 상무보의 환영사에 이어 인재개발팀에서 동양시멘트 및 삼척공장 연혁, 시멘트 주요 제조 공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멘트 제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앙통제실(6, 7호 소성로) 및 석회석 광산(46광구) 등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 한상옥 공장장은 환영사에서 "그룹 공채 신입사원의 첫 삼척공장 방문이 반갑고,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우리 신입사원들이 그룹 사업영역에 대한 이해는 물론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삼표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16년 첫 집합교육 삼표그룹 신입 대리 역량 강화 과정을 동행하다

지난 3월 16일 본사 이마빌딩 앞. 올해 새롭게 대리로 승진한 직원들이 경주 삼표연수원으로 출발하기 위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연수원에서 2박 3일간 교육을 함께할 직원들의 표정은 설렘과 기대 반반이었다. 신입 대리 역량 강화 과정에 참석하는 이들과 동행했다.

01 경주 삼표연수원 강의실에서 동료와의 Co-Working 시간에 담당 강사가 타인의 그림을 유추해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2 삼표산업 율탈영업2팀 유우중 대리(왼쪽)가 동료들에게 '조직 내 갈등문제 상황 해결'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03 (왼쪽부터)유니콘 대전영업과 민경환 대리, 삼표산업 안양영업소 박정훈 대리, 삼표이앤씨 재경팀 최정현 대리, 동양시멘트 제품팀 고시원 대리가 수업을 경청하고 있다.



## 승진의 기쁨, 처음으로 달아보는

### 제대로 된 직급

삼표그룹의 직급 체계는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 순이다. 대리 이상의 직원은 이름이나 성 뒤에 직급을 붙이면 되지만, 사원은 보통 "송중기 씨, 중기 씨, 풍기야~" 정도로 불린다. 외부 업체 관계자는 "송중기 님, 담당님"으로 부른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야, 너" 심지어 "아가씨, 언니, 오빠"까지도 불린다.  
외부 업체 사장: "아니, 이 아가씨까! 레미콘 배차는 도대체 언제 되는 겁니까?"  
나여자 대리: "아니 사장님, 왜 저한테 이 아가씨, 저 아가씨 하세요?"  
외부 업체 사장: "뭐라고??? 아니 그럼 뭐라 불러요?"  
호칭을 부를 때 불릴 직급이 없는 서러움이란... 그러던 사원들이 드디어 대리가 됐다. 입사한 지만 4년을 채우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급을 달게 된 것이다. 3월 초 신입자 발표가 나자마자 승진자들은 책상 앞 명패를 바꿔 달고 새로운 명함도 만들었다. 직급이 주는 책임감 때문인지, 자부심 때문인지, 누군가에게 명함을 건넬 때도 손 모양이 더욱 공손해졌다. 축하인사도 빗발쳤다. "오~ 김대리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황대리님, 대리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전대리가 입사한 지 벌써 5년이나 됐나? 축하하고, 앞으로 더 잘 해보자고!"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오는 끊임 없는 축하인사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질리지

않았다. 진급 발표 사흘 뒤, 인재개발팀으로부터 신입 대리 역량 강화 과정에 참석하라는 메일이 도착했다. 생일을 달력에 표시하는 것처럼 낯간지럽지만 몇몇 대리는 탁상 달력에 큰 글씨로 일정을 썼다. '진급자 교육'이라고.

### 설렘을 안고 갔던 신입 대리 역량 강화 과정

이른 봄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삼표연수원은 뜨거운 열정이 넘쳐났다. 열정의 주인공은 올해 대리로 승진된 68명. 이들은 회사의 맡기등을 떠받들 참신하고 능력 있는 젊은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입 대리 역량 강화 교육은 3월 9일부터 11일, 16일부터 18일, 2차수에 걸쳐 2박 3일간 진행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신입자 교육에서 달라진 점은 새 식구가 된 동양시멘트 직원도 함께한다는 것. 직급별 역량모델을 구축해 해당 직급에서 요구되는 리더십 역량과 직무 공통 역량을 세분화하여 내재화를 시도한다는 것. 아웃도어 액티비티(Outdoor Activity)와 시네마 러닝(Cinema Learning)이 도입됐다는 것이다.

과정은 기본교육인 삼표그룹의 역사, SAMPYO-WAY의 이해부터 시작했다. SAMPYO-WAY란 전 직원이 갖춰야 할 핵심 가치 역량으로, 체계적인 변화를 통한 '혁신', 열정과 추진력을 가진 '도전 정신', 자기개발로 강화된 '전문성',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말한다. 기본교육을 마친 교육생들은 사내외 강사로부터 기업회계, 문제 해결 이해와 능력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01 삼표산업 성수영업소 정상영 대리가 동료들과 함께 순서대로 나열된 그림을 뒤집어 보며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다.

02 삼표산업 서부영업소 유명재 대리(오른쪽)가 동료들에게 자신이 가진 그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3 삼표 SM팀 장준영 대리가 아웃도어 액티비티 체험 도중 암벽 정상에 올라 힘껏 종을 치고 있다.



04 10m 높이의 외줄 건너기 코스는 혼자서는 절대 통과할 수 없고 2명 이상의 동료와 서로 호흡을 맞춰야만 건널 수 있다.

05 삼표산업 성수영업소 정상영 대리(왼쪽)와 물탈영업2팀 유우중 대리(오른쪽)가 10m 높이의 통나무 점프 코스에서 공중그네를 잡기 위해 뛰어오르고 있다.



동료와의 Co-Working 시간에는 30분 동안 30여 명이 서로 다른 그림을 하나씩 나눠 갖고, 각각 그림 설명을 통해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임을 했다. 마감 2분 전에 그림을 완성했다. 담당 교육강사는 “다른 곳에서 이 게임을 해 보면 시간 내에 마치는 것도 힘들어하고 스토리 구성도 뒤죽박죽인 경우가 많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림을 설명해야 하고 타인의 그림을 유추해 스토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하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게임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긍정적 시각과 칭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다. 사람은 누가 자기에게 기대를 갖고 칭찬해주면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도,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도, 선배가 후배를 가르칠 때도 그렇다. “미국의 교육학자 로버트 로젠탈이 1968년 초등학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능검사를 했습니다. 무작위로 20%를 뽑아 이들에게 지능과 성적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고 거짓말을 했지요. 8개월 뒤 다시 검사해보니 이들 집단이 다른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올랐습니다.” 새내강사로 초빙된 신대원 골재영업팀 김기준 차장이 기대와 칭찬의 힘에 대해 설명했다.

### ‘진짜 사나이’가 되기 위한, 아웃도어 액티비티 체험

대망의 교육 마지막 날, 교육생들은 천안 삼성인재개발원에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체험했다. 헬멧과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가장 먼저 13m 암벽등반을 시작했다. 대부분 남자직원은 큰 무리 없이 암벽 위의 종을 울리고 내려왔지만 문제는 여직원이었다. 일부 여직원은 중도 하차했고, 평소 산악회 활동으로 체력을 다진 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는 이를 악물고 암벽을 올랐다.

“김대리 파이팅!”, “한발만 더 움직여봐. 할 수 있어 김대리” 옆에서 두 명의 남자직원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안 김대리는 힘겹게 혼자와의 싸움을 했다. 지켜보는 이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서 김

대리가 드디어 암벽 정상에 올랐다. 이제 종만 울리면 된다. 오랜 시간을 매달려 있어서 체력이 방전된 김대리가 헬멧을 쓴 머리로 종을 쳤다.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김대리, 그건 아니지! 조금만 힘내봐” 동료들의 응원에 김대리가 대답했다. “아악~ 더는 못한다고, 저 그냥 내려가면 안 돼요?” 결국 김대리는 젓 먹던 힘을 다해 종을 쳤고,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힘찬 박수를 쳤다.

다음 코스는 10m 높이의 통나무 점프 코스.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낀다는 11m 높이에 근접한 수차다. 심지어 그곳에서 뛰어서 1m 앞 공중그네를 잡아야 했다. 삼표이앤씨 PC공무팀 황동민 대리와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생산팀 도재근 대리가 첫 도전에 나섰다. 등 뒤에 안전로프를 매달고 통나무에 오르기 시작했다. 통나무 꼭대기에 도달한 황대리가 일어서지 못한 채 소리쳤다. “아... 아... 이거 장난 아니예요.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의기양양하게 통나무에 올라갔지만 밑을 내려다

보니 험기증이 일었다. 공포에 질린 황대리에 비해 김대리는 한 마리의 날다람쥐가 활공하는 것처럼 멋지게 날아 ‘찰싹’하고 그네를 잡았다. 김대리의 시범에 용기를 얻은 황대리와 동료들이 차례로 통나무에 올랐다.

삼표 SM팀 장준영 대리는 “통나무 위에 올라 균형을 잡고 일어서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밑에서 응원해 주는 동료들이 없었으면 일어서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고 나니 그네를 한 번 잡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뛰어서 그네를 잡고 나니 해냈다는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고 말했다.

마지막 코스는 10m 높이에 설치된 4개의 외줄을 건너는 코스였다. 20m나 되는 이 코스는, 혼자서

는 절대 통과할 수 없고 서로 호흡을 맞춰야만 건널 수 있다. 동료의 어깨에 손을 얹고 박자를 맞춰 한 발씩 떼야 한다. 동료가 긴장하는 만큼 진동이 줄을 통해 전해졌고 처음 몇 발은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협력 끝에 무사히 외줄을 건너 팀원들끼리는 하이파이브를 하고 외줄 승강기를 타고 내려왔다. 아웃도어 액티비티는 신임대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난관도 부딪혀보자는 도전정신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좋은 기회가 됐다. 누군가 나를 응원해 주고 함께 해 준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2박 3일간 무사히 교육을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 신임 대리들은 앞으로 든든한 Follower로서, 준비된 Leader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직원으로 성장할 것이다.



2016년 신임 대리 역량 강화 과정 2차수 교육생.

## “선배, 일이 너무 힘들어”

피할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는 직장생활.  
그런데 누구는 '센스만점 후배'라는 소리를  
듣는다? 상사가 미워할 수 없는 부하직원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 직장인의 숙명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술자리 유머 하나. 요즘 직장인, 흔히 말하는 '직딩'들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마음가짐이 있다고 한다. '적자생존', '대기만성', '주인의식'. 고리타분한 단어들이라고? 천만에, 그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

우선 적자생존. 회사 윗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도 빠짐 없이 적어야 산다는 의미다. 바야흐로 이제 '적는 자가 생존한다!' 두 번째 대기만성.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직장 생활, 업무가 있건 없건 상사가 부를 때까지 대기하는 게 만성이 되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주인의식. 본인이 조직의 주인처럼 주체적으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큰일 날 소리다. 회사의 진짜 '주인'을 의식하며 알아서 처신하라는 의미다.

친한 선배가 풀어놓는 최신 직장 처세술에 좌중은 배꼽 잡으며 웃었으나,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는 없다. 그래, 어쩌면 윗분들이 부를 때까지 할 일이 없어도 대기하고, 상사의 지시라면 토씨 하나까지 꼼꼼히 적어야 하고, 상사를 알아서 모셔야 하는 게 우리 직장인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월급 봉투에 찍히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그런 과정에서 흘릴 땀방울과 눈물, 애환에 대한 보상이니까.



### 부장님은 왜 나에게 야근을 하라고 했을까

직장 생활은 기본적으로 힘들다. 아랫사람은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윗사람은 더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한다. 대개의 경우 연차가 쌓일수록 임금은 쥐꼬리만큼 느는 데 반해 스트레스는 꼬끼리 다리처럼 굵게 늘어난다. 그렇다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들어온 금쪽 같은 직장을 함부로 박차고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저 악마 같은 이 부장, 김 이사만 없다면, 내 직장 생활이 얼마나 행복할까. 당최 왜 저렇게 상사들은 부하들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일까. 까닭 없는 결과가 있을 리 없다. 직장은 '이윤추구'라는 본연의 목적이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곳이다. 그래서 각 구성원이 느끼는 심적 압박감과 고통은 개인생활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지는 않는다. 학생이 공부를 못해도 학교는 망하지 않는다. 신도

가 기도를 건성으로 해도 교회는 문닫지 않는다. 그렇지만 회사의 구성원이 일을 못해 실적을 못내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부모, 교사, 목사는 훈육과 설교를 할지언정, 구성원을 닦달하지는 않는다. 반면, 부하직원이 일을 못하면 직장 상사는 가혹하리만치 야단을 친다. 이것이 가정, 학교, 교회와 같은 1차 집단과 회사라는 2차 집단의 차이다.

하물며 내 부모조차 저런 심한 표현을 쓴 적이 없거늘 어디 감히 저런 인신공격성 질책을~! 뭐? 이 보고서를 월요일 아침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주말에도 일하라는 소리잖아? 아니,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 게 운동 내 책임인 것처럼 뒤집어 씌우는 건 무슨 경우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직딩'들의 마음 속, 분노의 화산이 상공 수천 킬로미터까지 치솟아 오른다. 하지만 어찌하겠는가, 직장이 전쟁터라면 바깥

은 지옥이라고 <미생>에서도 말하지 않았던가. 억울하고 치사해도 참아야 하는 게 직장생활의 전제 조건이다.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선배는 월급을 '탄다'는 표현 대신 '벌러간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 하루를 견뎌내야 할까. 비법은 없다. 다만 한 번쯤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다. '부장님은 왜 나한테 야근 지시를 내리는 것일까. 왜 이사님은 내가 이미 기획안에 A라는 해법을 제안했음에도 굳이 B안을 고집하시는 걸까. 이게 무슨 큰 일이라고 상무님은 휴일에 전원 출근 명령을 내리신 걸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장, 이사, 상무님이 나보다는 이 회사에 오래 재직하고, 연륜이 있다는 점이다. 확률로 볼 때 상사는 부하직원보다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100가지를 알고 있는 상사가 70가지만 알고 있는 부하에게 업무를 지시하다보니, 부하는 자기가 모르는 30가지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오해를 하기 십상이다. 그 나머지 30가지까지 상사가 친절하게 알려 주면 좋으련만, 현실적으로 상사는 부하보다 더 바쁘다. 상사 대부분은 부하직원에게 모든 것을 일일이 설명할 여유가 없다. 부하직원 입장에서 이런 직장생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오 부장이 최 주임에게 목요일까지 기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한다. 최 주임 입장에서는 완벽한 기획서를 제출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주임급이 제출한 기획서를 과장, 부장 손을 거치지 않고 임원에게 곧바로 상신하기는 힘들다. 최 주임이 열심히 기획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보완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최 주임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기획서 초안을 예정보다 하루 빨리 수요일 오전쯤 제출하는 게 좋다. 윗분들이 기획서를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의미다. 마감시간에 빠듯하게 목요일 오후 4~5시쯤 제출할 경우, 상사 입장에서

는 기획서를 고치느라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으므로 되도록 빨리 일을 진행하면 좋다. 어차피 완벽한 결과물을 못 낼 바에야 속도라도 빠르게 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의미다.

### 내가 편하게 일하는가, 상대방이 편하게 일하는가

업무 이메일도 마찬가지로이다. 업무 진행 시 '내가 편한 쪽으로' 하기보다는 '윗분들이 편해질 수 있도록' 처리하면, '센스만점' 후배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예컨대 어떤 '판단'이나 '결정'이 필요한 업무 이메일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50점짜리 사원은 그 메일을 그대로 상사들께 포워딩하면서 결정과 판단을 윗분들께 통째로 맡긴다. "부장님, 기획팀에서 신제품 출시일을 언제로 할지 우리팀 의견을 묻는 메일을 아래와 같이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답할까요?"라는 식이다. 반면, 100점짜리 사원은 그 방향이 옳건 그르건 일단 자신의 1차 의견을 제시한 뒤 상사의 의견을 추가로 구한다. "부장님, 우리팀 의견을 묻는 메일이 기획팀에서 아래와 같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산 상황과 경쟁 업체 동향 등을 감안해 신제품을 4월말에 출시하자는 답신을 주려고 합니다. 부장님은 어떠신지요, 고건 주시면 반영해 기획팀에 답하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받은 이메일을 그대로 부서 상사에게 전달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보겠다는 자세로 달려드는 후배를 어떤 상사가 미워할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직장생활의 철칙이 있다. 바로 조직에서 '예의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어차피 직장도 사람과 사람이 모여 생활하는 하나의 유기적 조직이다.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보다 직장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다.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형클어지면 제 아무리 탁월한 성과를 내는 직장인일지라도 조직 내에서 장수

하기는 힘들다. 어느 조직에서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직장에서는 상사, 동료, 후배에 대한 예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흔히 친한 직장 선배에게 '형' 혹은 '언니'라고 부르는 후배들이 있다. 호칭을 친밀하게 부르는 것까지는 상관 없지만, 직장 후배로서의 마음가짐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 상대 입장에서는 '편하게 대해 줬더니 기어오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왜 이런 고민까지 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나고? 앞서 말하지 않았는가. 적자생존과 대기만성, 주인의식까지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직장인의 숙명이라고. 정말 힘들고 서러울 때마다 급여명세서 한 번씩 들여다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으면 한다. 그래, 이런 거 버티라고 회사가 나한테 월급 주는 것 아니겠어!?



적자생존과 대기만성, 주인의식까지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

# 더 큰 목표를 향한 새로운 도약대 삼표피앤씨 여주공장



01



02

## 25년 된 낡은 공장, 삼표피앤씨 품에서 새로 출발하다

지난해 1월, 삼표피앤씨가 대림보일러를 인수하면서 여주공장의 운곽이 그려졌다. 2월, 공장 설립 승인이 떨어지며 비로소 삼표피앤씨 여주공장의 첫 역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 단장이 필요했다. '여주공장 정상화'라는 과제를 안고 여주로 거처를 옮긴 정휘철 공장장은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며 옅은 한숨이 겹친 미소를 내비쳤다. 그만큼 심각했지만, 지금은 '나아졌다'는 의미일 터. 여주공장은 삼표피앤씨에게는 신규 공장이지만, 기존 공장을 인수했기에 공간은 물론 설비까지 오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기존 공장이 지어진 지 무려 25년이나 된 상태였습니다. 거의 구조물만 남아 있었죠. 공장을 가동하려면 크레인과 라인 구축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설비나 라인을 다시 구축하려면 관련 도면은 필수. 땅속에 묻혀 있는 배관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해야만,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추적할 수 있다. 하지만 여주공장을 인수할 당시에는 제대로 된 도면은 없었다. 난감한 상황. 그러나 방법을 찾아야 했다. 정휘철 공장장의 지휘 아래, 관리팀 박영 차장이 여주시청으로 달려갔다. 준공 이후 관공서에 제출했을, 여주공장의 도면을 찾기 위해서다.

“워낙 오래된 공장이라 도면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주시청 문서고에서 겨우 발견했죠. 도면이 있는 지금도 전면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워요. 보일러실에서 사무실로 이어지는 난방배관이 낡아 스팀을 보낼 수가 없어 모든 건물에 난방기를 새로 설치했죠.”

크고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며 진행한 공사. 하반기부터는 시범생산도 준비하는 바쁜 일정을 보냈다. 그리고 2015년 12월 29일, 여주공장에 준공 허가가 내려졌다. 삼표피앤씨에게 찾아온 달콤한 연말 선물인 셈이었다.

“9월부터 보 생산을 시작해서 11월에는 슬래브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제반 환경 개선은 꾸준히 지속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도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여주공장이 제 몫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정휘철 공장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불어오는 바람도, 한결 한기가 덜했다. 들녘도 누런 겉옷을 벗고 파릇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다. 삼표피앤씨 여주공장은 어느덧 다가온 봄을 만끽할 새도 없이 생산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다음 현장으로 납품하기 위해 차곡차곡 쌓아둔 PC만이 봄벌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불투명한 경제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성장세를 보이는 PC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을 직감할 수 있었다.

01 지난해 1월 대림보일러를 인수해 본격 가동을 시작한 여주공장은 현재 서울, 수원, 천안, 용인, 음성, 당진 등의 건축현장에 PC를 납품하고 있다.

02 여주공장 아적정에 납품 대기 중인 PC제품이 질서 정연하게 쌓여있다.

03 생산팀 직원이 회전식 슬라브(Slab) 라인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고 있다.



03



01 생산팀 직원이 JRS 슬라브(Slab) 제품 탈형을 위해 물드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02 생산팀 직원이 하프 슬라브(Half Slab) 제품의 강연선 절단 작업을 하고 있다.

03 생산팀 이계진 사원이 양생수조에서 공사체를 꺼내 확인하고 있다.

04 품질팀 김진우 사원(왼쪽)과 정휘철 공장장(오른쪽)이 아직장에서 제품 품질 검수를 하고 있다.

### 삼표피앤씨의 국내 1위 도약을 지원

많은 기업이 몸집을 불리는 데 주춤하는 요즘, 삼표피앤씨가 용감한 투자를 감행하며 신규 거점을 마련한 이유가 있다. 최근 PC(Precast Concrete/사전제작형 콘크리트) 사업은 전에 없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인력난'과 '공사 기간 단축', '안전성 강화' 등의 이유로 앞으로도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다.

“요즘 공사 현장에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3D 업종에 대한 거부감으로 건설 현장에 뛰어드는 젊은 내국인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죠. 그런데 PC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무형의 효과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PC를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니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제반 안전이나 정리정돈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품질에 미세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PC는 일관된 품질을 제공합니다. 이제는 현장 시공에서 PC 시공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현장에서 PC를 채택하게 될 거고요.”

삼표피앤씨가 PC 사업에 뛰어든 때부터 목표는 국내 1위였다. 그런 점에서 여주공장은 삼표피앤씨가 찾던 최적의 기능과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 여러 지역이 물망에 올랐지만, 여주를 최종적으로 낙점한 삼표피앤씨. 여주는 전통적으로 PC 산업이 강했던 곳이다. 이 때문에 관련 인프라가 탁월했고, 인력 수급도 비교적 원활했다.

“여주공장은 삼표피앤씨 안에서 청주공장 다음으로 큰 곳입니다. 청주공장 생산량이 8만㎡ 정도라면, 여주공장이 3만8,00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주에 비하면 작은 규모지만, 삼표피앤씨 총 생산량인 16만㎡의 약 25%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 속에서도 여주공장은 세종특별자치시 힐스테이트, 경기도 용인 기흥 역세권 힐스테이트 등 굵직굵직한 현장에 납품을 마쳤다. 지금도 현대자동차 일산복합점 납품을 진행 중이며, 가락시영 지하주차장 납품도 준비하고 있다.

05 (왼쪽 왼쪽부터)품질팀 김진우 사원, 관리팀 김형동 사원, 생산팀 박춘기 과장, 김래중 대리, 관리팀 천성민 사원. (이웃줄 왼쪽부터) 관리팀 박영 차장, 김은지 사원, 공장장 정휘철 부장, 생산팀 이계진 사원, 김동진 사원.  
06 생산팀 이계진 사원(왼쪽)이 공사체 압축강도 시험하는 모습을 관리팀 박영 차장(오른쪽)이 지켜보고 있다.  
07 생산팀 직원이 하프 슬라브(Half Slab) 제품의 탈형 작업을 하고 있다.

### 차별화된 라인으로 생산성 강화에 박차

신규 공장인 만큼, 여주공장만의 특색도 있다. 정휘철 공장장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분은 슬라브 라인의 반자동화. 특히 회전식 생산 설비를 사용한 덕분에 단위면적당 생산율이 높은 편이다. 아울러 하우스 형식의 양생실을 만들어 양생에 드는 비용도 절감했다. 타설에서 양생까지 거의 자동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변형보 금형도 여주공장이 지닌 차별점이다.

“PC는 주문형 제작을 하기 때문에 금형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볼트가 아닌 핀 체계로 바닥을 고정해 프로젝트마다 금형을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한 금형을 폐기 처분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거죠.”

지난 1년여의 시간이 공장 정상화를 위한 인고의 여정이었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성과에 집중할 때다. 정 공장장은 “올 3월부터 700㎡ 초과 달성으로 2016년 상반기 목표를 마무리 짓겠다”고 다짐한다. 여주공장의 목표는 삼표피앤씨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기도 하다. 삼표피앤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 위해 도약대 역할을 하겠다는 여주공장. 첫걸음을 디뎠으니, 이제는 힘차게 뛰어올 순간이다.

### Mini Interview

#### 최고의 제품을 완성하기 위한 도전 정휘철 공장장



여주공장이 삼표피앤씨의 새 시공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준공 후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단합'입니다. 삼표피앤씨 출신으로 여주공장에 발령받은 사람도 있지만, 인력 충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직원도 다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환경을 경험하고 한자리에 모였기에, 초창기에는 각자 다른 프로세스로 업무를 처리해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삼표피앤씨의 방식에 모두 익숙해졌어요. 심기 일전해서 생산 목표를 맞춰가자죠.

#### 품질 향상을 위해 여주공장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PC의 기본은 콘크리트입니다. 배합비 설정이 매우 중요하죠. 모래와 자갈, 시멘트 등의 원재료 배합비를 우리 공장 설비에 맞게 새롭게 설계했습니다. 원가절감은 물론 품질향상까지도 구현하려는 조치입니다. 한편으로 기능공 교육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준급 기능공을 매년 수급할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장 여건상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능공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역할도 저희가 할 몫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에게 주기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능공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제품의 품질 향상을 견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공장장으로서는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여주공장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팀원은 팀장에게, 팀장은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보고를 강조했다면, 올해는 이미 한 일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실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시멘트 정기주주총회

“새로운 백년대계를 세웁시다”

3월 25일 강원도 삼척 동양시멘트 본사 사무동 2층 대강당에서 동양시멘트 제25기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장을 맡은 최병길 동양시멘트 대표이사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실 감사의 감사보고서, 부의안건 심의가 있었다. 최병길 사장의 인사말을 축약(縮約)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신록이 움트는 새봄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략) 2015년은 석유 등 원자재 가격 급락, 중국경제 성장의 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된 한해였고 우리나라도 내수침체, 수출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해에도 금리, 환율 등 시장 지표는 그 어느 해보다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동양시멘트는 지난해 3월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고, 10월에는 삼표그룹의 일원으로 새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중략)

지난해 삼표그룹은 기존의 레미콘, 골재, 분체, 콘크리트 파일, 물류, 철도, 환경 사업에 시멘트를 추가하여 국내 최초로 건설-기초소재 분야에 특화된 완결된 수직계열화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동양시멘트는 삼표그룹 전 계열사와 시너지를 창출하고 상호 간 장점을 융합하여 초일류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중략)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동양시멘트는 59년 전 첫 삼을 뜬 이곳 삼척과 전국 팔도 17개 유통기지에서 새로운 백년대계를 세우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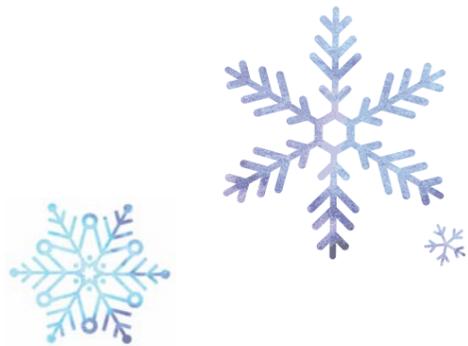


## 지난 겨울을 한라산에서 떠나보낸다

삼표산악회, 올해 첫 특별산행으로 백록담에 오르다  
꽃자왈,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환상의 숲

“떠나요, 들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엿매이긴 우리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깡깡발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하늘 아래로.”

-최성원 '제주도의 푸른 밤'-



## 한라산 차마 못 다 부른, 그리고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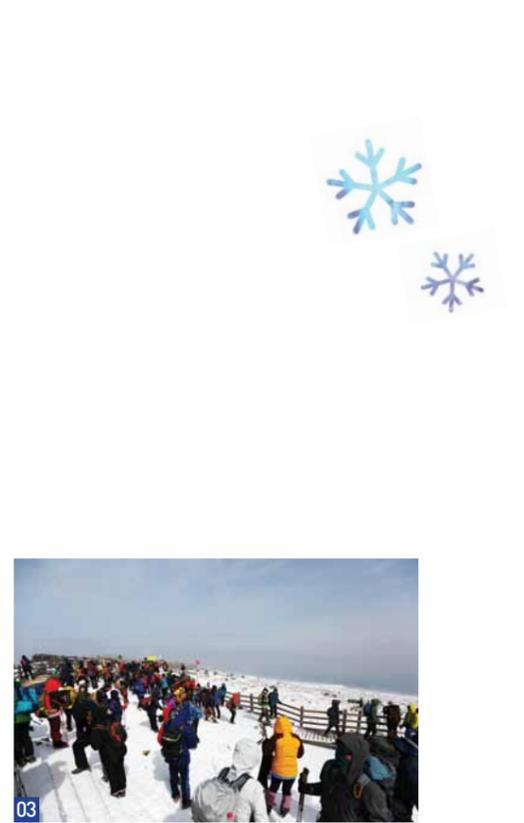
삼표 산악회는 지난 연말 송년모임에서 2016년 특별산행으로 제주도 한라산 등정을 계획했  
다. 2014년 10월 울릉도 성인봉, 독도 산행에 이은 두 번째 해외(?) 등반인 셈이다. 들뜬 마음으  
로 산악회 밴드에 준비할 물품과 일정, 현지 맛집, 그리고 숙소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다보  
니 예정된 날짜가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경비에 대해서는 동호회비 지원을 최소화하고, 참가  
회원들이 개인 비용을 내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다.

2월 20일 아침 이른 시간, 제주도로 가는 산악회 일행들이 공항버스, 전철, 카풀로 하나둘 김  
포공항에 모여들었다. 다행히 누구 한 명 지각한 사람이 없었다. 간단한 인원체크(11명) 후에 비  
행기에 몸을 실었다. 목표는 대한민국 최남단 평화의 섬, 제주도 한라산 정상. 비행기로 1시간  
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거리에 제주도가 있다. 그리고 제주도에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  
산(1,950m)이 있다. 제주공항 출구 밖으로 나와 제주 땅에 첫발을 내딛었다. 아직 삭풍이 가시  
지 않은 겨울날씨 탓에 쌀쌀한 기운이 몸 속을 파고들었다. 미리 연락해뒀던 소형버스에 올라  
탔다. 패기 왕성한 '어벤져스' 일행은 한라산 등반의 시발점(들머리) 성판악으로 향했다. 비행기  
연착으로 마음이 급했다. 버스 안에서 각자 오늘의 점심 도시락과 물, 그리고 오메기떡을 받  
으면서 정상 등정의 각오를 다졌다.

일반적인 한라산 등산 코스는 성판악으로 올라 정상인 백록담을 밟은 뒤에 관음사 쪽으로 내  
려온다. 그렇지만 지난해 5월,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 인근에서 낙석이 발생, 20여m 구간의 데  
크시설과 난간 등이 파손되면서 이 쪽으로 내려서는 코스는 출입이 통제됐다. 결국 성판악으  
로 다시 돌아오는 원점회귀코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출발지점인 성판악은 주말을 맞아  
전국에서 마지막 겨울 한라산의 눈(雪) 절경을 즐기러 온 등산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여기에  
버스를 주차한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등산 배낭을 챙겨 내리자 버스는 행하니 사라졌다. 일  
행은 모자와 장갑, 그리고 스틱 등 겨울철 등산채비를 마치고 내달렸다.

오전 9시 30분쯤에 성판악을 출발했다. 늦어도 정오 전에는 진달래대피소를 통과해야 백록담  
을 올라갈 수 있다. 성판악에서 진달래대피소까지는 7.3km, 평탄한 등산길이라도 족히 3시간  
정도 걸린다. 문제는 탐방로에 쌓인 눈과 얼음들. 초입에는 눈이 별로 없었지만 샘터휴게소를  
지나자 쌓인 눈에 자꾸만 걸음이 느려진다. 배낭에서 아이젠을 꺼내 착용했다. 중간 중간에  
진달래대피소까지 남은 시간을 불러주며 서로를 격려했다. 평소 산행과 음주(?)로 단련된 일  
행은 11시 30분에 진달래대피소에 도착했다. 일반인이 3시간 걸린다는 거리를 2시간 만에 주  
파한 것이다. 서둘러 점심 도시락을 배낭에서 건넸다. 비록 차갑게 식은 도시락이지만 “시장이  
반찬이요, 내 입맛에 맞으면 그것이 진수성찬”이라는 진리를 재확인했다.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다고, 이럴 때에 따뜻한 라면 국물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물려왔다.

- 01 한라산 백록담 정상을 오르는 등산객들을 보면 마치 종교적인 신심을 증명하려는 순례자들같이 보인다. 길게 늘어서 줄이 산허리를 감싸는 쇠사슬처럼 느껴진다.
- 02 한라산 정상에서, 실을 에는 바람과 추위에 회원 모두 중무장을 했다. 좌측에서 시계 반대방향으로 윤석일 부장, 옥심국 차장, 김진식 부장, 김상동 차장, 유종석 차장, 서동원 차장, 김은선 대리, 황지신 사원.
- 03 겨울 한라산의 정취를 느끼려는 등산객들로 정상은 인산인해다. 순백의 동토 위에 알록달록한 등산복이 어우러져 곱게 채색된 점묘화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뱃속을 채운 회원들은 백록담으로 향했다. 대피소를 조금 지나자 저 멀리 한라산 정상에 보였다. 모두들 사기왕성, 의욕 충만 상태였다. 걸음걸이에 힘이 넘쳤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산허리를 끼고 도는 계단길이 나오고, 까마득한 계단길에는 등산객들이 딱딱따닥 붙어 있었다. 지독한 정체였다. 더구나 몸이 날아갈 정도로 엄청난 강풍이 불어제쳤다. 컷가에 '훅~훅~' '쌩아~'하고 차가운 바람의 울부짖는 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다.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할 수가 없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불면서 눈보라가 일었다. 입에서 탄식과 비명이 나왔다. 쉽게 정상을 내주지 않겠다는 한라산 산신(山神)의 오기일까? 한걸음 내딛기가 힘들었다.

영금영금 기다시피하며 마침내 정상에 도착했다. 한라산 정상인 백록담 분화구 전경이 선명하게 한눈에 들어왔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백록담은 금방이라도 흰 사슴이 나타날 듯 신비함을 더했다. 1년 내내 바람이 부는 백록담 분화구. 실을 에는 칼바람에 오래 산꼭대기에 있을 수 없다. 정상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일행은 서둘러 하산길을 잡았다. 길게 늘어진 줄에 하산은 더디기만 했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일행은 무사히 성판악으로 내려섰다. 대단한 삼표산악회 회원들. 더구나 여성회원이 두 명이었는데,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다. 웬만한 남성회원에게도 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뒤풀이에서의 화제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세차게 분 한라산 정상에서의 눈보라와 여성회원들에 대한 칭찬.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삼표 산악회를 위하여~' 건배 제의에 소주잔이 계속 비워졌다.

## 꽃자왈 원시림에서 힐링의 시간을

둘째 날, 일행은 전날의 등산 후유증으로 제주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다. 그래도 명색이 산악회인지라, 가볍게 걸기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다. 일행이 찾은 곳은 에코랜드와 용눈이 오름. 에코랜드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기차를 탈 수 있다. 또한 30만명의 꽃자왈 원시림을 거닐면서 숲의 맑고 깨끗한 공기를 만끽할 수 있다. 이전에는 올레길이 대세였지만, 이제 제주의 속살을 제대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꽃자왈을 꼭 여정에 포함시킨다. 꽃자왈은 제주어로 숲을 뜻하는 '꽃'과 자갈이 모인 곳을 뜻하는 '자왈'이 합쳐진 단어다. 화산이 분출할 때 점성이 높은 용암이 지표를 흘러가다 굳어진 지형이다. 한라산 아래 중산간(해발 200~600m)을 중심으로 분포하면서 동식물이 살아가는 완충지대이자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독특한 숲으로 평가받고 있다. 꽃자왈은 돌무더기로 이뤄진 곳으로 농사조차 짓지 못하는 버려진 땅이었다. 제주 사람들은 땀감용 나무를 얻거나 숲을 만들고 소를 방목했다. 땀감이 필요 없 어지면서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됐고 지금은 거대한 숲이 됐다. 물빠짐이 좋아 삼다수로 유명한 제주 용천수의 근원이고, 이산화탄소를 정화하는 제주의 허파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에코랜드에서는 기차를 타고 꽃자왈을 탐방할 수 있다. 메인 역에서 출발해서 10분쯤 지나면 에코브리지역에 내린다. 여기에는 호수를 가로지르는 수상데크길과 호수섬을 관찰하며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수변산책길이 있다. 두 길 모두 레이크사이드역으로 향하며 여기에서 다



01 한라산 하산하는 길, 몸이 휘청거릴 강풍과 미끄러운 눈길 때문에 내려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

02 한라산 정상을 배경으로 산악회 회원들이 정상에 오른 기쁜 표정을 짓고 있다. 좌측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정택문 부장, 육삼국 차장, 김진식 부장, 남윤식 과장, 유종석 차장, 서동완 차장, 김상동 차장, 김은선 대리, 황지신 사원.



03 용눈이오름의 전 사면은 목초인 겨이식과 개만들레, 잔디, 제비꽃, 할미꽃 등 키가 크지 않은 초본류들이 서식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문 부장, 유종석 차장, 육삼국 차장, 윤석일 부장, 김상동 차장, 서동완 차장, 남윤식 과장.



04 에코랜드 기차길에서, 앞에서부터 남윤식 과장, 황지신 사원, 김은선 대리, 윤석일 부장, 유종석 차장, 김상동 차장, 서동완 차장, 정택문 부장, 김진식 부장, 육삼국 차장.

05 에코랜드 안의 꽃자왈, 출발지에서 놀멍쉬멍하며 걸어도 대략 1시간이면 에코로드를 전부 돌아볼 수 있다. 왼쪽부터 남윤식 과장, 육삼국 차장, 정택문 부장, 서동완 차장, 윤석일 부장, 김상동 차장, 황지신 사원, 김은선 대리, 유종석 차장, 김진식 부장.



04 에코랜드 기차길에서, 앞에서부터 남윤식 과장, 황지신 사원, 김은선 대리, 윤석일 부장, 유종석 차장, 김상동 차장, 서동완 차장, 정택문 부장, 김진식 부장, 육삼국 차장.

05 에코랜드 안의 꽃자왈, 출발지에서 놀멍쉬멍하며 걸어도 대략 1시간이면 에코로드를 전부 돌아볼 수 있다. 왼쪽부터 남윤식 과장, 육삼국 차장, 정택문 부장, 서동완 차장, 윤석일 부장, 김상동 차장, 황지신 사원, 김은선 대리, 유종석 차장, 김진식 부장.

06 2014년 10월 산악회는 울릉도와 독도를 다녀왔다. 특히 독도는 기상여건이 좋지 않으면 접안이 되지 않는 곳인데, 산악회가 간 날은 더 할 수 없이 날씨가 좋았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오상훈 사원, 서동완 차장, 김성용 대리, 김진식 부장, 유주석 사원, 이용 과장, 정택문 부장, 김은선 대리, 황지신 사원, 남윤식 과장, 안도현 대리, 김상동 차장, 강성필 차장, 윤정용 부장, 이호영 부장.



### 삼표 산악회를 소개합니다

삼표 산악회는 애초에 두 개가 있었다. 1996년 만들어진 삼표 산악회와 2004년에 결성된 삼표 I&S 산악회. 2013년 삼표I&S가 (주)삼표에 흡수, 통합되면서 삼표I&S 산악회는 사내 동호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 해체될 위기에 처했다. 안타깝게 여긴 당시 두 산악회의 회장 등 운영진이 만나 하나의 산악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삼표 산악회가 재탄생하게 된 순간이었다. 현재 산악회는 매달 1회 이상의 정기 산행을 진행하고, 계절마다 이벤트 산행도 실시하는 등 가장 활동이 왕성한 사내 동호회로 자리매김했다.

시 기차를 타고 피크닉가든역에 내리면 꽃자왈을 탐방할 수 있다. '에코로드' 꽃자왈 탐방로는 구멍 난 돌로 경계를 지은 산책로를 제외하면 녹색이끼를 뒤집어쓴 크고 작은 바위가 숲을 뒤덮고 있다. 유려한 곡선의 길을 돌고 계곡을 건너는 동안 숲길의 아름다움에 한껏 빠진다.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나 대체로 삼나무, 그리고 덩굴식물인 송악이 삼나무를 타고 오른다. 고사리와 관중 등 양치식물이 바위틈을 메워 초록 덮개를 만들고, 줄사철나무 등 덩굴식물이 나무줄기를 타고 올라 신비로움을 더한다.

용눈이오름은 도로변에 있어 차를 세우고 바로 올라갈 수 있다. 정상(248m)까지 이르는 시간이 10~15분이면 넉넉하고, 정상 분화구를 도는 시간도 10분 정도면 충분하다. 높지 않으나 산체는 넓어서 든직한 감이 있다. 용눈이라는 이름도 마치 용이 누워있는 형태라고 해서 지었다. 정상 근처에 서면 바람이 세게 불어서 절로 겹옷의 옷깃을 세우게 된다.

이틀 동안 산악회 일행은 한라산 등산과 꽃자왈, 오름을 걸으며 자유가 됐다. 이제 제주를 떠나려 한다. 마지막으로 바람이 분다. 오름에서 맞는 바람에 눈가에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일행은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꽃자를 음미하듯이, 찻잔을 내려놓듯이, 그 자리를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떠나는 바람처럼, 그렇게 지난 겨울을 한라산에서 떠나보냈다.

#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편을 잡으셨던 아버지는 동네 꼬마들에게는 훈장 선생님이었고 집에서는 고칠 수 없는 물건이란 세상에 없는 맥가이버이자, 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소유한 슈퍼맨이었다. 평생 가족의 슈퍼맨이 되어 줄 것이라 믿었던 아버지는 최근 건강도 부쩍 안 좋아지시고 눈물도 많아지셨다. 깜짝 이벤트를 위해 피자를 들고 교무실을 들머서는 순간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과 함께 반가움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순간 그 눈물을 나만 보았을까. 금세 눈물을 감추고 환하게 웃으시는 아버지는 “아니, 회사 간다던 애가 여기는 웬일이냐?”며 동료들 사이에 선 막내아들을 와락 끌어안으셨다.



01 이현상 사원이 아버지 이병학 선생님과 함께 교내 '꿈꾸는 나무' 앞에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막내 현상이에요.

짧은 글로 아들의 마음을 전부 표현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전해보려 합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였던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인이 된 지 만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절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버지께서는 공업고등학교 진학이라는 다른 길을 제안해 주셨었지요. 아버지가 믿어주신 덕분에 다시 학업에 재미를 붙여 수도권 4년제 대학에 '딱' 하니 붙었고 이제는 취업난을 뚫고 삼표그룹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가 최고의 학교다. 네가 취직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회사다”라며 응원해 주셔서 항상 주변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32년간 한시도 쉬지 않고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아버지에게도 때때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전 류머티스성 관절염으로 인해 앉아계시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신 모습을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이 신경 쓸까봐 항상 괜찮다고 하시며 묵묵히 고통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으신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주말에 쉬고 싶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늘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가족여행으로 많은 추억과 경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국내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취업 후 돌아켜보니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더욱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보다 당신 스스로 가장 철저하고 엄격하셨던 아버지. 때로는 친구같이 연애상담도 해주시며 고민이 있어 보이면 먼저 다가와 들어주신 아버지. 늘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해주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더욱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 사랑하는 아들 이현상 올림 -



NEW LEADER, RECREATE, SAMPYO



02 이현상 사원은 파주중학교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피자를 한아름 들고 학교를 방문했다.

03 교무실에 찾아온 아들 이현상 사원을 보고 아버지 이병학 선생님이 반가워하고 있다.

04 이현상 사원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읽어주고 있다. 동료 선생님들은 편지 내용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05 이현상 사원은 아버지(오른쪽)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 이승정 교장 선생님(왼쪽)과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맛있는 발견

# 부산의 맛, 바로 이 맛 아닙니까~!

가을에는 국제영화제로, 여름에는 해수욕장으로 끊임없이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부산에는 동양시멘트 슬래그공장이 있다. 부산으로 출장 오거나 여행 오는 사우들을 위해 현지 근무자가 추천하는 맛있는 식당을 소개한다.

## 영진 돼지국밥



신평역

## 부산 명물 횡집



자갈치시장

## 평산옥



부산역

## 성일집

남포역

## SAMPYO 동양시멘트 부산슬래그공장

불화산

### 영진 돼지국밥 본점 부산 3대 돼지국밥집

부산에 오면 밀면과 더불어 꼭 먹어 봐야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돼지국밥이다. 그중에서도 부산 3대 돼지국밥이라는 영진 돼지국밥을 추천한다. 이곳은 오전 11시가 넘으면 대기손님이 많아 길게 줄을 서니 식사시간을 피해가길 바란다.

이곳을 찾는 손님 대부분이 수백을 주문한다. 오동통하게 삶은 향정살은 집내가 전혀 없으며 담백하기 그지없다. 돼지국밥은 뽀얀 국물에 정갈하고 깔끔한 편이다. 고기와 곁들여 먹는 볶음 김치는 무한리필할 수 있다. 맛과 양에서 모두 만족시켜 준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것은 직원들이 밀반찬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일어서 리필해주는 친절함이다.

영업시간: 10:00~22:00  
주요메뉴: 돼지국밥(6,500원), 수백(9,000원), 순대 등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 번영로 157번길 39  
문의: 051-206-3829  
주차: 주차 가능



### 유달산 식당 생복어, 생아귀 전문점

유달산 식당은 부산 공장을 방문한 사람에게 반드시 추천하는 맛집 일번지다. 이곳은 냉동 생선은 일절 사용하지 않고 생복어와 생아귀만을 취급하는데 당일 재료가 떨어지면 바로 문을 닫는다. 복어는 저지방 고단백 생선으로 혈액순환 촉진과 알코올로 생성된 지방의 분해를 돕고 아귀는 성인병은 물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술 먹은 다음 날, 숙취 해소에도 안성맞춤이다. 부산에서는 보기 드물게 10가지가 넘는 전라도 식 밀반찬들도 정갈하게 나와 식감을 더해준다.

영업시간: 11:00~20:00  
주요메뉴: 생복국, 생아귀탕(1만5,000원)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원양로 368  
문의: 051-204-0776  
주차: 주차 가능



### 부산 명물 횡집 자갈치시장 선어회 전문점

부산 명물 횡집은 자갈치 활어센터 맞은편에 있으며 2대째, 70년 가까이 운영되는 일본식 선어회 전문점이다. 이곳은 부산 향토 음식점 31곳 중 한 곳이자 <수요미식회>에도 소개될 정도로 유명한 맛집이다. 운이 좋으면 유명인들도 만날 수 있다. 회백밥은 회와 밥이 따로 나와서 쌈을 싸먹을 수 있는데 1인분에 3만3,000원으로 저렴한지는 않다. 두 명이 가면 회백밥을, 세 명이면 회를 주문하는 것이 좀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은은한 단맛의 마약초장에 한입 가득 차는 크기의 두툽한 회를 찍어 먹으면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속성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부산으로 여행 오면 꼭 추천하는 맛집이다.

영업시간: 09:00~22:00  
주요메뉴: 회백밥(3만3,000원), 돔/광어회(8만5,000원)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해안로 55-1  
문의: 051-245-4995  
주차: 가게 앞 유료 주차장 이용



### 국제밀면 부산 3대 밀면 전문점

국제밀면은 23년의 역사를 가진 부산의 대표적인 밀면 전문 음식점으로, '부산의 3대 밀면집'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부산의 3대 밀면집은 두 가지 설이 있다. 개금동의 개금밀면, 가야동의 가야밀면은 고정되어 있고, 국제밀면과 부전동의 춘추동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맛의 특징은 면, 양념, 육수에 있다. 면은 국내산 치자를 갈아낸 뒤 당과 섞어 5시간 숙성시킨 반죽을 면으로 뽑아내기 때문에 쫄깃하다. 양념은 창업주의 처갓집에서 직접 지은 국내산 고춧가루에 다양한 견과류를 넣어 일주일간 숙성시킨 다음에 사용한다고 한다. 육수는 소 사골만을 사용하여 비린내가 없으면서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다른 밀면집과 달리, 기계로 자른 편육이 아닌 손으로 일일이 얇게 찢은 양지머리 고기를 밀면 위에 올려준다.

영업시간: 11:00~20:00  
주요메뉴: 밀면(6,000원)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1235번길 23-6  
문의: 051-501-5507  
주차: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



### 평산옥 부산역 돼지 수육 전문점

평산옥은 부산역 인근 초량동 뒷골목 상해거리에 있다. 메뉴는 수육과 국수 두 개 뿐이다. 이곳은 1890년에 문을 열어 4대째 운영 중인 부산의 대표적인 노포(老舖)다. 수육은 간장소스와 새우젓에 찍어 먹기도 하지만 이곳의 특제소스인 달콤한 맛의 질금장에 찍어 먹는 것이 정석이다. 국수 육수는 수육을 삶은 물로 활용하는데 가볍게 즐기기에 좋다. 국수 위에 수육을 얹어서 먹으면 더욱 든든하다. 부산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열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간단하게 한잔 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이다.

영업시간: 10:00~20:00  
주요메뉴: 돼지수육(9,000원), 국수(3,000원)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591-11  
문의: 051-468-6255  
주차: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

### 성일집 부산 원조 먹장어(곰장어)집

성일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남포동에서 3대째 영업하고 있는 먹장어(곰장어) 전문점으로 롯데백화점 광복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메뉴는 소금구이와 양념구이, 가격은 1인분에 1만5,000원이다. 대부분의 손님이 알싸하게 매콤한 양념구이를 선호한다. 담백한 먹장어 본연의 맛을 원하시는 분에게는 소금구이를 추천한다. 먹장어는 콜라겐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은 서민의 대표 술안주다. 요즘 수입산이 많은데 성일집은 국내산만 사용하며 화학조미료를 첨가하지 않는다고 자부한다. 먹장어에 곁들여 먹기 좋은 재첩국은 무한리필할 수 있다. 김 가루를 뿌린 볶음밥도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코스다.

영업시간: 12:00~24:00  
주요메뉴: 소금구이, 양념구이(1만5,000원 / 1인분 기준)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대교로 103  
문의: 051-463-5888  
주차: 인근 유료 주차장 이용

# 응답하라 19☆☆

## 나의 학창시절

시간은 과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이제 하나의 추억이 된 학창시절!

이번 호 사보에서는 사우들의 학창시절 추억을 함께 나누고

'옛날 모습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응답하라 19☆☆'

나의 학창시절 포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삼표 감사팀 윤정용 부장 <1983년>

고등학교 시절은 왜 그리도 배가  
고픈지 쉬는 시간에는 '도시락 까먹기'  
의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도시락은 반찬도 변변치 않고  
밥도 식었지만 그 어떤 산해진미보다 더  
환상적인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때 먹었던 도시락 맛을  
잊지 못합니다.



삼표산업 법무팀 이선희 과장 <1993년>

제가 다녔던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에서는 매주 토요일 전교생이 한복을  
입고 하루 종일 다도 등 전통 예절과 전통 놀이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한복을  
결혼식이나 명절 때에 맞춰 입는 특별한(?) 옷으로 여겨 아쉽습니다.

삼표산업 몰탈영업담당 최장현 상무 <1982년>

넉넉하지 못했던 70~80년대에는 교련복을 등교할 때는  
교복으로, 외출할 때는 외출복으로, 다용도로 활용하는 단 벌  
의상이었습니다. 학도호국단이란 미명 아래 군복 같은 교련복을  
입고 플라스틱으로 된 M1 총을 들고 제식훈련에 총검술 연습도  
했던 고등학교 시절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때 같이 땀흘리고 놀던  
친구들이 그리웁니다.



삼표기초소재 시멘트대외협력담당 이사연 부사장 <1965년>

컬러 사진이 보편화 되기 전인 1965년, 서울중앙중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큰맘 먹고 찍은 사진입니다. 무려 51년 전이네요. 뽀뽀한  
깃에 후크 하나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불량소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던 일본식 검은 교복은 이제 '추억의 학창시절'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됐습니다.

삼표산업 화성사업소 생산팀 김태규 사원 <2008년>

안산공업고등학교 재학시절 친구들과 찍은 애교컷(?)입니다. 그때는 저  
바가지 머리가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 좀 부끄럽네요. ^^



네비엔 소각영업팀 한정협 사원 <1997년>

초등학교 시절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당시에는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아람단이 유행했습니다. 보이스카우트는  
2002년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 명칭을 바꿨다네요.



동양시멘트 업무지원팀 허철웅 과장 <1991년>

서인천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축제에 참가했습니다. 당시 축제에서는  
대부분 기타반주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수상의 영광(?)은 비밀입니다.  
그 시절에는 꼭 축제가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기타 하나만 있으면  
그곳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삼표산업 구매팀 박효진 사원 <1992년>

초등학교 시절 동네 꼬마들은 어디서나 배트맨 놀이를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면을 만들어 "배트맨~"하고 외치는 것이 정석이었지요.  
망토를 입고 보자기를 목에다 둘러매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친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삼표산업 사업개발팀 장명석 차장 <1993년>

고등학교 소풍 때 친구들과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시절에는 전국적으로  
농구 열풍이 불었고 사람들은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 열광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농구 가방을 하나씩 메고 다녔습니다.

# 아침 잘 먹고 5분만 운동하면 춘곤증이 싸악!

봄철 대표적인 피로증후군은 무엇일까?

바로 따뜻한 봄날이 되면 자주 피곤해지고

오후에 졸음을 호소하는 춘곤증과 점심을 먹은

후 몸이 나른해지고 졸음이 오는 식곤증이라

할 수 있다.



**봄의 불청객 춘곤증,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진료받아야**  
춘곤증과 식곤증은 모두 낮이 길어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생체리듬이 깨져 나타나는 현상으로 나른한 피로감, 졸음, 식욕 감퇴, 소화 불량, 현기증, 긴장성 두통 등이 주된 증상이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춘곤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622명을 대상으로 봄철 춘곤증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71.5%가 춘곤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춘곤증은 추운 날씨에서 따뜻한 날씨로 바뀔 때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생기는 피로 증상으로 이는 자연스러운 생리현상이다. 겨울철에 운동을 안 하거나 부족한 사람일수록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극심한 스

트레스까지 더해지면 불안증과 우울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증세는 보통 1~3주 정도 지나면 사라진다.  
춘곤증 증상은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시도 때도 없이 졸음이 쏟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빈혈, 간염, 결핵, 당뇨병, 지방간, 갑상선 질환의 초기 증상과 유사하다. 대부분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봄철 피로를 단순히 춘곤증 탓으로 돌린 채 방치한다. 만약 춘곤증이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봄에는 일조시간이 길어지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근육의 이완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우리 몸은 쉽게 나른해진다. 아무래도 외출이 잦아지기 때문에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의 영양소

필요량이 증가한다.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다.  
**춘곤증 예방, 식습관과 운동은 기본**  
춘곤증을 이기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이 기본이다. 대처와 예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침밥은 꼭 챙겨 먹자.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많이 먹게 되어 식곤증까지 겹친다. 아침을 먹으면 오전 시간에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공급해주어 피곤함을 덜 느끼게 된다. 아침에는 빵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과 생선, 콩류, 두부, 달걀 등을 간단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저녁에는 고단백질과 봄나물 채소, 신선한 과일로 원기를 회복시켜 준다. 둘째, 잡곡을 많이 먹자. 춘곤증은 비타민B이

## TIP, 춘곤증을 풀어주는 사무실 스트레칭



하루에 9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어깨나 목 근육이 뭉쳐 피로해지기 쉽다. 근육의 피로나 긴장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생긴다. 피로가 누적되면 근력이 약해져 긴장성 근육통이 생길 수 있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게 된다. 가벼운 스트레칭은 뭉친 근육이나 관절을 이완시켜 피로 물질이 근육에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정신도 맑게 한다.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방법을 소개한다.

### 목 뒤 근육 스트레칭

오른손 바닥으로 머리 왼쪽 뒤통수를 감싸 쥐고, 45도 오른쪽 앞으로 지긋이 당겨서 5초 이상 있다가 원위치 시킨다. 다음은 반대로, 왼손 바닥으로 오른쪽 뒤통수를 감싸 쥐고, 45도 왼쪽 앞으로 지긋이 당겨서 5초 이상 유지한다.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의 하나로, 정신 집중으로 인해 긴장되기 쉬운 목 뒤 근육과 목덜미 근육을 이완시켜 준다.

### 목 관절 스트레칭

긴장을 풀고, 편안히 앉은 후 목을 좌우로 각각 3회씩 천천히 회전시킨다. 단순히 목을 돌린다는 생각보다는 머리의 무게를 몸이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크게 회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긴장된 목 근육을 이완시켜 주며, 목뼈가 뻣뻣해 지는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다.

### 어깨 근육 스트레칭

오른팔을 편안히 늘어뜨린 상태로 팔꿈치를 가볍게 90도로 굽히고 힘을 뺀 상태에서 왼쪽 손으로 오른 팔꿈치를 감싸 쥐고, 천천히 힘껏 왼편으로 지긋이 당겨서 5초 정도 유지한다. 무리하게 당기기보다는 천천히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 이때 어깨 뒤 근육과 팔의 바깥 근육이 당겨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쪽 팔 근육을 당겨준다.

### 팔 근육 스트레칭

팔꿈치를 편 상태로 양손의 손목을 꺾어서 손등을 허벅지 위에 대고, 손가락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 팔에 체중을 서서히 가하며, 손목이 천천히 더 꺾이게 한다. 팔꿈치 근육이 당겨지면 5초간 유지한다.

### 허벅지, 장딴지 근육 스트레칭

사무실 책상 아래 빈 공간으로 한쪽 다리를 직선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발목을 발등 쪽으로 최대한 꺾고 5초간 유지한다. 이때 장딴지 근육이 당겨지고 대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반대편 다리도 반복한다.

### 발목 근육 스트레칭

발목 관절을 크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리면서, 이때 발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도 함께 해준다. 발목 주위 인대와 발가락 힘줄이 당겨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허리 근육 스트레칭

의자에 편안히 앉은 자세에서 배와 허리를 앞으로 내밀며, 척추를 곧추세우고, 허리에 5초간 힘껏 힘을 준다. 허리가 쭉 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부족한 사람에게 많이 생긴다. 평소엔 비타민B이 많이 들어 있는 콩, 보리, 팥 등을 넣은 잡곡밥을 먹는 것이 좋다. 특히 현미는 흰쌀보다 열량이 낮고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 있으며 칼슘과 비타민B가 두 배 이상 들어있다. 봄나물처럼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제철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머리를 맑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제철음식은 냉이, 달래, 쑥, 취나물, 두릅, 부추, 방풍나물, 주꾸미와 소라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딸기, 방울토마토 등의 붉은 열매나 채소에 들어 있는 색소인 리코펜과 안토시아닌은 항산화물질로 근육의 피로물질인 젖산 생성을 막고 노화를 방지하는 기능도 있다.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면 20분 정도 낮잠을 자는 것이 춘곤증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주중에 쌓인 피로를 풀겠다고 휴일에 잠만 자면 오히려 다음날 더 심한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짧은 운동이 춘곤증을 물리치는 데 효과가 있다. 앉은 채로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책상에 손을 대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나른했던 몸이 깨어나고 근육도 강화된다. 마음이 즐겁다면 어떤 운동이라도 괜찮다. 짧은 운동으로 효과를 보길 원한다면 한 번에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이 좋다.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외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반복하기, 바닥에 닿을 만큼 등 구부리기 등도 좋다.

5~10분 운동은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미국심장학회와 미국스포츠의학회에 따르면 실제 운동 효과를 얻으려면 일주일 운동 시간이 30분은 돼야 한다. 즉 6일 동안이라면 하루 5분씩, 3일 동안이라면 10분 정도는 운동을 해야 한다. 운동한 뒤 개운한 느낌을 주는 것은 뇌 속 신경전달물질 엔도르핀 때문이다. 그리고 엔도르핀은 보통 운동 시작 뒤 5~7분 사이에 쏟아져 나온다. 따라서 하루 10분씩 일주일에 3번 운동하는 게 하루 5분씩 주 6회 운동하는 것보다 더 기본 좋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커피, 음주, 흡연을 삼가야 한다. 졸음이 온다고 커피를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몸의 피로감이 심해져 오히려 졸음에 시달린다.

# 행복한 노후, 목돈 10억보다 평생월급 500만원이 더 낫다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노후준비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5억, 10억 등의 목돈 또는 부동산 자산으로 노후를 준비하려 한다. 연금이 아닌 목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



평생

## WS <목돈과 연금의 10가지 차이점>

-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꿈이 있다.
- 목돈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
- 목돈 가진 사람은 “왕년에 내가...”라 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나는 앞으로~”라고 한다.
- 목돈 까먹는 것은 한도가 없지만, 연금은 까먹어도 한도가 있다.
- 목돈은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 목돈 가진 사람은 “호구”가 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갈”이 된다.
- 목돈 가진 노인은 일찍 가는 게, 연금 가진 노인은 오래 사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다.
- 목돈은 이벤트를, 연금은 삶을 준비하는 것이다.
- 목돈은 금융자산이지만 연금은 사회제도이다.

한번



매달 받던 월급을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다고 생각해 보자. 과연 좋을까? 매년 일정한 시기에 1년치 연봉이 한번에 들어오니까 당장은 풍족한 듯 보이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여유를 만끽하다가 얼마 못 가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대부분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자금이 고갈되고 남은 기간을 빚에 허덕이며 연명하게 된다.

그런데 1년 치가 아니라 30년 치 월급을 한 번에 받는다면? 과연 한 달치 계획을 세우고 버티는 것도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30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까? 판단력이 분명하고, 활동력도 뛰어나서 일정한 계획과 통제가 가능한 30~40대 젊은이라면 모르겠지만, 60~70대 어르신에게 노후 30년 동안 쓸 목돈이 한 번에 주어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역사상 경험해 본적이 없는 초고령 사회가 오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목돈을 가지고 노후를 보내는 사람보다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는 것은 공무원 은퇴자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목돈 10억을 만들려고 고민할 시간에 평생월급 500만 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

**1. 평생월급 워크시트를 만들어라**  
모든 일의 시작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일부터이다. 평생월급 워크시트를 통해 내 노후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다.

**2. 배우자 연금을 챙겨라**  
우리나라의 연금 구조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보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냥 아무나 한 사람이 받아서 같이 쓰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노후생활을 연구해 보면 연금의 명익은 의외로 매우 중요하다. 남성의 평균

준비		예상 연금수령액							
상품	명의	월납입액	납입기간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후	남편 사후
국민연금	남편	36만 원	60세	개시 전	개시 전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종료
국민연금	아내	10만 원	10년	개시 전	개시 전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60만 원
퇴직연금	남편	30만 원	재직기간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종료	종료
연금저축	남편	25만 원	20년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종료	종료
개인연금1	남편	40만 원	10년	개시 전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종료
개인연금2	아내	60만 원	10년	개시 전	개시 전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

<평생월급 Worksheet>

개인연금펀드는 투자하는 펀드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수명이 여성보다 짧기 때문에 1회당 연금수령액은 남자가 더 많지만 여자는 평균수명이 길기 때문에 더 오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누가 더 받고 덜 받고를 계산하는 것보다 노후에 부부 각자가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만 행복한 노후가 가능해진다.

**3. 개인연금저축, 이렇게 가입해라**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개인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안정성을 원하면 은행에서 판매하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 신탁이 좋지만 이자율이 너무 낮아서 올해부터 가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수익성을 원한다면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개인연금펀드는 투자하는 펀드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 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노후에 평생동안 연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생명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은 종신연금 기능이 있어서 살아 있는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연

금저축은 연간납입액의 12%를 48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5%, 6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후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준 것이므로 돌려받은 세금을 써 버리는 것보다는 연금에 재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이다.

**4. 여윌돈은 연금보험에 추가 납입하라**  
개인연금저축을 제외한 다른 연금보험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노후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적게는 15.4%에서 많게는 41.8%의 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납입액의 2배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추가납입의 장점은 매달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에 비해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에 가입한 연금에 추가로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여윌돈이 생겼다면 쓸데 없이 소비하지 말고 추가납입을 통해 연금 재원을 늘려보자.

# DIY

## 당신도 뭔가를 만들어보라

DIY(Do-It-Yourself) 열풍이 한동안 주춤했다가 장기불황의 사회적 환경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내 손으로 만드는 성취감에 이어 비용절감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 DIY는 어떻게 사람들을 매혹했을까.

### DIY,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힘찬씨(37)는 재작년 12월 새 집으로 이사를 하며 집안 곳곳을 직접 손봤다. 먼저 현관문과 방문 그리고 책장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파란색 페인트로 칠했다. 천장과 벽면, 벽면과 벽면이 만나는 모서리를 덮는 몰딩 작업도 했다. 두 작업을 위해 이씨가 쓴 돈은 20만 원 정도.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했을 때 받은 견적은 80만 원이었다. 업체를 부르지 않고 직접 한 덕분에 60만 원의 비용을 줄인 것이다. 거실과 현관 앞 조명도 손수 교체했다. 두 아들을 키우는 그는 최근에는 조립식 2층 침대를 사 와서 이들에 걸쳐 완성했다. 그는 소위 말하는 DIY(Do It Yourself)족이다. 그는 "직접 인테리어를 하면서 비용을 많이 줄였다. 친환경페인트를 사서 아이들과 함께 칠하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이씨와 같은 DIY족이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얘기는 아니다. 설문조사업체인 엠브레인이 지난해 20~59세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41.5%가 DIY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DIY 경험자 중 37.8%는 '주변 사람에게 DIY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DIY족의 주된 활동 영역은 홈 인테리어, 차량 수리, 튜닝, 홈베이킹 등이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구를 포함한 홈 인테리어다.

인천에 거주하는 최동호씨(32)는 두세 달에 한 번꼴로 인천 연안부두에 나간다. 부두를 통해 들어오는 가구용 재료를 보기 위해서다. 거기에서 고른 나무로 직접 가구를 만든다. 통나무를 판매하는 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원목 가구를 수제로 디자인해서 만드는 가구점을 통해 필요한 만큼 재료를 주문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만든 식탁 책상, 책꽂이, 옷장이 집안을 채우고 있다. 최씨는 "대부분 완성품 가구 가격의 절반 미만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 완성품 가구를 산 게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웃었다. 그는 DIY에 대해 돈도 절약하고 나만의 스타일을 살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며 예찬론을 폈다.

DIY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손수 가구를 만들고 페인트칠을 직접 칠하는 이들은 완성품을 사거나 업자를 불렀을 때보다 최소 50%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한다.



### DIY는 어떻게 트렌드가 되었나

이러한 트렌드는 특히 남성에게 두드러진다. 여기에는 최근 케이블 TV에서 방영되는 MN(내방의 품격), JTBC(현집줄게 새집다오), XTM(수컷의 방을 사수하라) 등을 통해 남성이 집을 꾸미는 모습이 많이 비친 영향도 크다. 온라인 쇼핑몰 옥션이 1월 말부터 한 달간 인테리어 용품 구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 구매율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조립가구 제품은 76% 구매가 증가했고 가구의 높이 조절을 가능하게 해주는 바퀴와 손잡이 등 부속품도 29% 신장했다. 이밖에 리폼타일·시트지(75%)와 페인트·스프레이(34%) 등도 매출이 크게 뛰었다.

DIY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이다. 손수 가구를 만들고 페인트칠을 직접 하는 이들은 완성품을 사거나 업자를 불렀을 때보다 최소 50%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한다. 인터넷 중고제품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재료를 싸게 구한다면 비용을 더욱 아낄 수 있다. 실제로 페인트는 남은 제품을 사고파는 일이 활발하다. 적은 양만 필요했던 사람은 사용 후 처치가 곤란했던 페인트를 팔아 돈을 벌 수 있으니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이득이다. 재료뿐만 아니라 DIY에 필요한 공구도 중고제품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인터넷을 통해 DIY 방법을 공유하기 쉬워진 것도 DIY의 확산을 견인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침대 조립' '책장 페인트칠' 같은 검색어 몇 개만 입력해도 관련 내용이 쏟아진다. 특히 재료 구입부터 만들고 꾸미는 과정 그리고 완성된 모습까지 사진과 함께 친절하게 설명해놓은 블로그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인터넷에서 DIY 과정을 소개하는 이들에게서 엿보이는 심리는 성취감이다. 이 성취감은 남들이 알아줄 때가 된다. 그래서 DIY 작업마다 사진을 찍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상세한 설명을 남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다. 사실 DIY족들은 완성품 가격과 재료 구입비용을 비교해서 돈을 아꼈다고 말한다. 내가 투입한 시간과 노동은 비용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를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DIY를 통해 얻는 재미와 성취감 탓이다.

DIY의 즐거움을 타인과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산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주머니가 얇아져서 어떻게든 돈을 아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내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것이 유행이란단. 주변 사람들도 공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손재주도 뛰어난 사람으로 바라본다. 마음속에 있는 DIY의 동기가 어떻게든 DIY는 꽤 많은 것을 가져다주는 매력적인 일이다.

“봄날은 휘날리며  
흐날리는 벚꽃잎이”

천들선들 밟고 오는 코끝 가득 봄내음에 취해  
꽃비 흩날릴 때에 환장할 정도로 아름답다



진해 입구인 파크랜드에서 진해여고까지 약 1.5km  
여좌천을 따라 벚꽃터널이 펼쳐진다.  
이 벚꽃 길은 연인과 손잡고 걸으면 결혼에  
이른다고 해서 '혼례길'이라고도 부른다.

### 봄의 전령은 꽃이다

봄은 꽃을 타고 복상한다. 동백은 한겨울에도 꽃이 피니, 봄을 알리기엔 이쁘다. 뜨락에 매화가 피어나면 봄이 왔음을 실감한다. 이어 산수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이 차례로 난분분해지면서 봄은 절정으로 내닫는다. 생전(生前) 법정 스님은 법문에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이 봄날에 어떤 꽃을 피울 것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라고 말했다. 봄날에 활짝 핀 꽃에서 소소한 삶의 행복 비결을 배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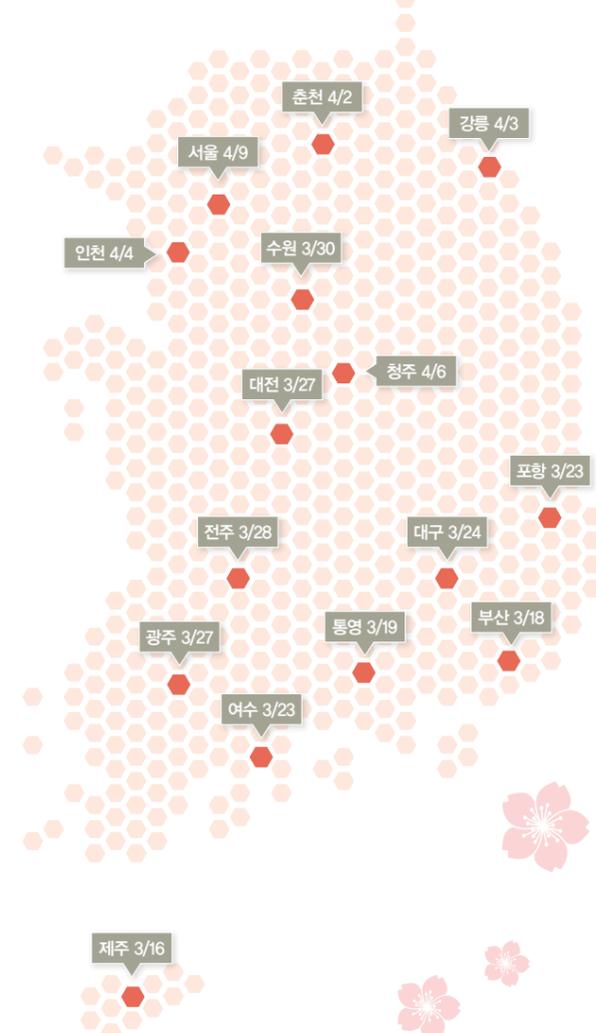
봄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꽃 중에서도 벚꽃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맘 때가 되면 한 유명 밴드의 '벚꽃엔딩'이라는 노래가 봄바람을 타고 음원차트를 역주행한다. 출사꾼들은 이 때를 기다렸는지 카메라가방을 어깨에 들어 맨다. 여행사들도 겨우내 묵은 적자를 털어낼 요령으로 '벚꽃 구경' 투어를 앞 다퉈 쏟아낸다. 이웃 일본에서는 아침 NHK뉴스에서 날씨보다 벚꽃전선이 얼마만큼 복상했는지를 제일 먼저 보도한다.

4월이 되면 울긋불긋 꽃말미가 난다. 산과 들에 피었던 매화나 산수유에 이어 거리의 벚꽃이 도시를 뒤덮는다. 4월 초순부터 시작해 중순쯤이면 전국은 온통 하얀 꽃구름, 벚꽃 세상이 된다. 벚꽃은 솜털같은 꽃송이를 달고 사람 걸음으로 달려든다. 사람들은 저마다 벚꽃 그늘에 앉아 활짝 핀 꽃의 화려함을 찬양한다. 그리고 이내 꽃에 델세라 들숨날숨을 고른다.

벚꽃의 교태에 봄은 비로소 성숙한 여인이 된다. 늘어진 가지는 여인의 저고리 앞섶처럼 너울춤을 춘다. 안하무인적인 봄바람은 여인의 뺨을 때리고 연둣빛 치마 끌어당겨 저고리 갈가리 찢겨 휘파람 타고 논다. 절정의 순간, 봄바람의 간지럼에 벚꽃은 흐드러지게 피었다 한 순간 꽃비를 뿌리며 사그라진다. 흩뿌림이 대지를 온통 메울 때면 '환장할 정도로 아름답다. 삼장강 시인 김용택은 "바람에 날리는 벚꽃 이파리를 보고 어찌 인생을, 사랑을, 노래하지 않고 견디겠는가"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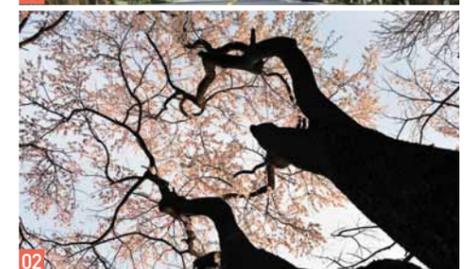
### 4월, 가장 화려한 도시로 탈바꿈

국내에서 벚꽃으로 이름난 곳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벚꽃 1번지'로 거론되는 곳은 경남 진해다. 38만7,0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수줍은 듯 살포시 웅크려 있다가 희디흰 속살을 드러낸다. 도시는 흰색과 분홍색으로 가득 채워진다. 새하얀 꽃송이들이 겹겹이 포개고 얽혀 운치가 있다. 만개한 벚꽃과 길쭉 위에 떨어진 벚꽃 두덩이 화려하다. 솜사탕처럼 하얗게 뒤덮던 벚꽃은 한 줄기 바람이라도 불면 도시 전역에 하얀 꽃비를 뿌린다. 꽃비는 거리와 철길을 순백으로 물들고, 사람 머리 위에도, 거리에 세워둔 자동차에도 살포시 내려앉는다. 도시 전체가 벚꽃 천지인 진해에서 벚꽃 명소를 찾는 일은 무의미하다. 굳이 꼽으려면 여좌천, 경화역, 장복산공원, 안민고개, 제황산공원, 해군사관학교 등이 유명하다. 이 중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여좌천이다. 미국 CNN방송이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곳' 가운데 벚꽃 명소로 선정했다. 1.5km의 실개천을 따라 걸으면 온 세상이 벚꽃 터널이다. 곳곳에서 연인들이 개천을 따라 손을 잡고 꽃구경에 빠져 있다. 절정의 자태를 자랑하는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 찍느라 난리법석이다. 경관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밤에도 탐스런 벚꽃세상을 만끽할 수 있다.



제주 3/16

인천 4/4, 서울 4/9, 춘천 4/2, 강릉 4/3, 수원 3/30, 대전 3/27, 청주 4/6, 포항 3/23, 전주 3/28, 대구 3/24, 부산 3/18, 광주 3/27, 통영 3/19, 여수 3/23



01 하동 화계장에서 썬계사로 가는 심리벚꽃길은 아름다운 벚꽃의 터널이다. 흐드러지게 핀 꽃길은 낭만적이고 인상적이어서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다.

02 벚꽃은 그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보다 아름답고 화려하다. 화창한 봄날에 바람에 날리는 분홍꽃 이파리를 보면 어찌 환장하지 않겠는가. 어찌 저 꽃을 보고 참는단 말인가. 사진은 영암 왕인박사 유적지 벚꽃길의 빛나무.



03

03 평소 고즈넉하던 철길은 벚꽃이 만개하면 인파들로 넘쳐난다. 철로로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문은 무용지물이 된다. 사진은 경남 진해 경화역 철길.

경화역 철길도 빠질 수 없다. 경화역과 세화여고 사이 800m 길이의 고즈넉한 철길을 따라 화사한 벚꽃이 가득하다. '선로를 걷지 말라'는 뜻말이 있지만 벚꽃이 만개하는 기간에는 경고문도 무용지물이다. 특히 기차가 역으로 들어오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플랫폼에 늘어서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다. 들어서는 기차의 풍광에다 마치 비처럼 쏟아지는 꽃잎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십리벚꽃길' 화려한 꽃의 향연**

진해 벚꽃과 견줄 수 있는 곳이 화개장터와 쌍계사 '십리벚꽃길'이다. 70~80년 된 벚나무들이 길가에 뻗뻗이 서 있다. 4월초 봄날이 완연할 때에 벚꽃이 앞 다투어 꽃망울을 터뜨린다. 새하얀 꽃송이들이 겹겹이 포개지고 얽혀 두덩을 이룬다. 옆집 창가에도, 골목길 담 언저리에도, 산비탈에도, 화개천 계곡에도 벚꽃은 고개를 내민다. 슬쩍 하얀 소복자락 스치는 소리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다. 눈에 들어오는 것 모두가 분홍, 하양 저고리가 허공에 너울지는 것 같다. 소설가 박완서는 "봄의 정령이 돌파구를 만나 아우성을 치며 분출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표현했다. 그 말에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이즈음 십리벚꽃길을 찾아가면 어질어질하다. 가지와 가지가 맞닿은 벚꽃 터널 밑에 서면 화사한 분홍 빛깔에 걷는 것조차도 힘들다. 큰아이 속살같이 희뿌연 벚꽃이 피어나 있다. 고개를 위로 쪽 뻗어 걷다 보면 똑바로 걷지 못한다. 자꾸만 걸지자겉음으로 길가로 들어선다. 벚꽃에 취한 이의 눈에 끝없이 긴 꽃물결이 앞을 가로막는다. 벚나무가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꽃 터널 아래로 바람이 불면 꽃잎이 휘날리면서 분위기는 더욱 고조된다.



십리벚꽃길은 화개장터에서 쌍계사까지 약 6km 구간을 가리킨다. 1931년 화개면 주민들이 벚나무 1,200그루를 심은 것이 계기가 됐다. 초입에 세워진 '한국의 아름다운 길' 표지판은 벚꽃터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다. 이 길을 따라 걷다 보면 벚꽃은 피는 게 아니라 흐드러진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요즘에는 화개천 옆과 상·하행 도로 가운데에 인도를 설치했다. 걸어 다니기 좋다. 더 좋은 풍광을 위해서는 화개천 옆보다 도로 가운데 나무데크를 추천한다. 십리벚꽃길은 낮에도 좋지만, 밤에도 훌륭하다. 어둠을 배경으로 조명을 받은 벚꽃 터널은 오히려 낮보다 환하다.

**60리 길에 순백의 꽃눈 천지**

해마다 4월초가 되면 전남 영암에도 환한 벚꽃길이 열린다. 읍내에서 왕인박사 유적지로 이어진 왕복 2차선 꽃길은 가지와 가지가 서로 맞닿아 꽃터널을 이룬다. 꽃길은 멀리서도 단박에 눈에 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면 환하다 못해 눈부시다. 벚나무는 왕인박사 유적지로 갈수록 굵

고 크다. 일제 때 심은 왕벚나무는 이제 고목이 돼버려 꽃송이가 많지 않다. 그래도 운치가 있다. 험난한 세월을 버텨오면서 검은 빛을 띠는 나무 기둥과 연분홍빛이 어우러져 아름다리 벚꽃길을 연출한다. 영암읍에서 89번 국도를 따라 왕인박사 유적지를 거쳐 학산면 독천까지 꽃길은 25km 정도, 열추 60리 길이다. 원래 영암 읍내에는 일제 때 심어 놓은 1km 정도의 벚꽃길이 있었지만 꽃길이 너무 짧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80년대 당시 영암군수가 가로수로 벚꽃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왜의 꽃'이라며 극렬히 반대했다. 지금 이 벚나무들이 효노릇을 톡톡히 한다. 벚나무는 제법 굵어지고 꽃송이도 복슬복슬해지면서 벚꽃길 명소로 자리 잡았다. 영암군은 해마다 벚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왕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밤이면 더욱 요염해지는 벚꽃**

경주는 한때 수학여행의 성지였다. 지금이야 제주도는 물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가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수학여행을 논할 때에 경주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경주가 매력 있는 벚꽃 여행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여기 벚꽃, 만만치 않다. 품은 내력도 그렇고, 드러낸 풍모도 그렇다. '벚꽃 경승지'라는 표현이 무리가 아니다.

경주는 도처에 벚꽃이 흐드러져 핀다. 대릉원과 첨성대, 반월성 일대는 도드라진 풍경을 선사한다. 보문호를 둘러싼 호반도로도 해마다 벚꽃철이면 절정의 자태를 선보인다. 호수와 벚꽃이 어우러져 화사한 풍경을 펼쳐낸다. 보문관광단지 안에는 숨은 벚꽃 명소이자 사진작가들의 단골 출사지로 알려진 보문정이 있다. 수양벚꽃과 왕벚꽃, 그리고 아담한 정자 등이 작은 연못과 더불어 데칼코마니 같은 풍경화를 펼쳐낸다. 힐튼호텔 맞은편 왼쪽 대각선 방향의 버스정류장 뒤편에 있다.

벚꽃길 가운데 유명한 곳은 충효동의 김유신 장군묘 진입로인 '흥무로'다. 몇 해 전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한국의 길 100선' 가운데 한 곳이다. 450m쯤 되는 구간에 봄이 되면 아름다리 벚꽃들이 화려하게 꽃등불을 내건다. 경주의 벚꽃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밤 풍경이 좋다. 밤에는 한결 요염해진다. 조명이 비춰진 벚꽃 아래 있으면 마치 하늘에서 하얀 눈이 내리는 듯하다. 낮에 보는 부드러운 벚꽃의 자태와는 확연히 다르다. 조명을 그대로 반사해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알 같다.

04 벚꽃은 바람에 질 때 가장 아름답다. 10일 동안 하얀 물감을 뿌린 벚꽃은 사방으로 색(色)을 흩뿌리며 사그라진다. 사진은 경북공 경화루의 능수벚꽃.



04

**사람들이 찾지 않는 숨겨진 벚꽃 명소**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유명 벚꽃 명소를 알려면 포털을 검색하면 된다. 방대한 양에 상세한 설명까지. 굳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거나, 신문기사를 뒤적일 필요가 없다. 문제는 벚꽃 명소가 관광지 이다보니 상춘객과 차량, 그리고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몹살을 잃는다는 점이다. 호젓하고 사색에 잠긴 벚꽃 구경은 제쳐두고라도 짜증만 내다가 오는 경우가 대다수다.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찾지 않는 벚꽃 명소를 추천한다.

**☑ 서대문 안산 벚꽃길**

서울의 벚꽃명소로는 여의도 윤중로, 서울대공원, 석촌호수, 종량천, 어린이대공원 등이 손꼽힌다. 하지만 이러한 벚꽃 명소는 넘쳐나는 사람들로 번잡함을 피할 수 없다. 부드러운 산길을 걸으며 호젓하게 벚꽃을 감상하려면 서대문구 안산(296m)을 추천한다. 서대문구청 뒤편에 자리한 안산은 4월 중순경이면 왕벚나무가 일제히 꽃을 피워 산을 화사하게 물들인다. 안산에서 가장 큰 벚나무 군락은 연희동과 맞닿은 '연희 숲속쉼터'에서 바로 접할 수 있다. 여기를 들머리로 전망 좋은 분수대까지 올랐다가 무악정을 거쳐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 코스다. 이렇게 거쳐 오는 데 약 2시간이 소요된다.

**☑ 서산 용비지**

충남 서산의 벚꽃 명소라면 누구나 개심사를 손꼽는다. 개심사는 국내에서 벚꽃이 가장 늦게 피어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지역의 벚꽃이 다 지고 난 4월 하순에서 5월 초가 돼서야 꽃이 활짝 핀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청벚꽃이 피는 것으로 유명하다. 푸르스름한 빛이 감도는 청벚꽃은 꽃송이도 유난히 커서 탐스럽기 그지없다. 사진작가들이 즐겨 찾는 서산의 벚꽃 명소로 용비지(사진)라는 곳이 있다. 이 곳은 저수지를 배경으로 등골과 얇은 구름들이 사위를 감싸고 자작나무와 메타세쿼이아, 편백나무 등이 식재돼 있다. 봄철이면 벚꽃이 곳곳에 흐드러져 늘씬한 나무들과 조화를 이룬다. 바람이 불지 않는 이른 새벽, 안개에 흠뻑 취한 벚나무들의 고혹한 자태와 주변의 모든 풍경이 물 위로 수렴되는 진기한 장면을 조우할 수 있다.



Reader's Quiz

E-MAIL

★★★★★

**독자 퀴즈**

-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게 본 칼럼과 이유는?
- 2 향후 사보에서 읽고 싶거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 3 삼표피앤씨가 지난해 1월 대림보일러를 인수해 만든 공장 이름은?
- 4 매월 정기산행을 하는 삼표 산악회는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 5 국내에서 '벚꽃 1번지'로 거론되는 곳으로 사보에 소개된 곳은 경남 OO입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채워서 5월 13일까지 이메일 [홍보팀 장새롬 과장 com2mi@sampyo.co.kr]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 3만원 권을 보내드립니다.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난호 퀴즈 정답>**

- 1 삼표피앤씨 제천파일공장
- 2 김대현
- 3 1957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남동레미콘 출하팀 김정기  
 동양시멘트 삼척공장 생산팀 박현철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임용주  
 삼표산업 제도개선팀 안정하  
 삼표피앤씨 PST제천공장 관리팀 장수은

### 함께 만드는 사람들

삼표그룹 사보는 계열사 곳곳의 소식을 전 그룹사에 전파하고자 사보 기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스거리를 제보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소속 기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삼표 홍보팀 장새롬 과장 com2mi@sampyo.co.kr / 레미콘 삼표산업 레미콘기획팀 한신 사원 hs1206@sampyo.co.kr  
 골재 삼표산업 골재영업팀 장성현 사원 ctzls77@sampyo.co.kr / 철도, 건설 삼표이앤씨 콘크리트신규사업팀 권정은 사원 juo@sampyoenc.com  
 분체 삼표기초소재 분체기획팀 박은지 사원 knam0908@sampyo.co.kr / 철스크랩, 환경자원 네비엔 환경기획팀 서동욱 과장 sdu2004@neven.co.kr  
 IT 삼표 시스템2팀 김은선 대리 dbswls1208@sampyoins.com / 물류 삼표 물류기획팀 황영만 대리 poireo@sampyo.co.kr  
 시멘트 동양시멘트 인력개발팀 최진호 대리 jinho.choi@tongyang.co.kr

입사를 축하드립니다!

### 신입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남동레미콘	광주공장 영업과	민성호	사원	2016.02.17
남동레미콘	동서울공장 영업과	육승훈	사원	2016.03.21
네비엔	포항공장관리팀	오해원	사원	2016.03.16
삼표	BCT운영팀 당진FA출하실	위대현	사원	2016.03.02
삼표	BCT운영팀 당진Sag출하실	하영택	사원	2016.03.02
삼표	DT운영팀 강원물류영업소	전형윤	사원	2016.03.04
삼표	DT운영팀 예산출하실	유영무	사원	2016.03.02
삼표	법무팀	유아라	사원	2016.03.21
삼표	신규영업팀	채현석	사원	2016.03.21
삼표	신규영업팀 화성에너지	양선익	사원	2016.03.02
삼표	인사팀	김준태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PC팀	김다솜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R/C품질경영팀	황채린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골재기획팀	김재임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당진공장 영업과	박종현	사원	2016.02.17
삼표산업	물탈영업2팀	전효경	사원	2016.02.22
삼표산업	물탈영업3팀	김한솔	사원	2016.01.25
삼표산업	북부영업소	김세동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서부공장 영업과	홍주호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설비3팀	신민제	사원	2016.03.02
삼표산업	성수공장 영업과	김수일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송도공장 영업과	강륜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안양공장 관리과	김장미	사원	2016.01.06
삼표산업	용인공장 영업과	김광범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류현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백승엽	사원	2016.03.0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백준수	사원	2016.03.0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염대준	사원	2016.03.07
삼표산업	원료검사팀	정선중	사원	2016.03.07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고남길	사원	2016.01.06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김동건	사원	2016.01.06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김봉재	사원	2016.01.06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김진규	사원	2016.01.06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김진규	사원	2016.01.06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양정모	사원	2016.01.06
삼표산업	충무팀	이원복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품질기획팀	박지혜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품질기획팀	신재호	사원	2016.03.21
삼표산업	풍납공장 영업과	이명우	사원	2016.02.17
삼표산업	풍납공장 품질과	장주희	사원	2016.03.02
삼표산업	화성물탈공장 관리팀	곽민수	사원	2016.02.15
삼표피앤씨	PC영업팀	서대운	사원	2016.03.21
삼표피앤씨	여주공장 생산팀	김성현	사원	2016.03.21
삼표피앤씨	여주공장 품질관리팀	김진우	사원	2016.03.02
삼표피앤씨	여주공장 품질관리팀	김태호	사원	2016.03.21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강남경	사원	2016.03.22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김성진	사원	2016.03.22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김창업	사원	2016.03.23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박승일	사원	2016.02.15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오동진	사원	2016.01.18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전병규	사원	2016.03.02
삼표피앤씨	제천공장 생산팀	조명선	사원	2016.03.22
삼표피앤씨	청주공장 생산팀	오윤호	사원	2016.03.21
삼표피앤씨	콘크리트기획팀	이소영	사원	2016.03.21
삼표피앤씨	포항공장 관리팀	오해원	사원	2016.03.16
삼표피앤씨	해외영업팀	장원석	사원	2016.03.21
신대원	안성사업소 생산팀	권동성	사원	2016.03.09
엔알씨	생산팀	이득원	사원	2016.03.21
유니콘	대전공장 영업과	이태권	사원	2016.02.17

### 경력입사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경한	비철선별팀	정광용	차장	2016.02.15
경한	영업2팀 포항	허정엽	차장	2016.01.18
네비엔	건축토목공사팀	이기섭	차장	2016.01.01
네비엔	고철정제팀	권오태	사원	2016.01.27
네비엔	자원개발팀	김병배	대리	2016.01.18
동양시멘트	기계팀	고광택	사원	2016.03.02

회사명	팀명	이름	직급	입사일자
동양시멘트	기계팀	권희섭	사원	2016.03.02
동양시멘트	기계팀	김혁주	사원	2016.03.02
동양시멘트	기계팀	서동진	사원	2016.03.02
동양시멘트	부산사업소	권태진	사원	2016.03.02
동양시멘트	생산팀	서인석	사원	2016.02.01
동양시멘트	업무지원팀	이윤병	차장	2016.01.01
동양시멘트	영업기획팀	권익성	차장	2016.01.04
동양시멘트	창원사업소	이효준	사원	2016.03.02
동양시멘트	해외사업팀	한정홍	부장	2016.01.18
삼표	SM팀	김정길	사원	2016.03.14
삼표	시스템1팀	최성식	대리	2016.01.13
삼표기초소재	당진Sag공장 품질관리팀	윤재철	사원	2016.03.02
삼표기초소재	천안Sag공장 생산팀	정용현	사원	2016.03.14
삼표산업	골재품질기획팀	고재영	부장	2016.02.15
삼표산업	송도공장 관리과	하승수	주임	2016.01.11
삼표산업	안성공장영업과	박지혜	사원	2016.03.14
연구소	연구소	이재훈	사원	2016.02.01
삼표산업	연구소	이하나	사원	2016.02.01
삼표산업	연구소	하상원	사원	2016.02.01
삼표산업	연구소	이재남	선임	2016.03.02
삼표산업	연구소	박천진	전임	2016.02.15
삼표산업	연구소	홍선희	전임	2016.03.02
삼표산업	용인공장 관리과	박진욱	사원	2016.01.11
삼표산업	원주공장 관리과	황주영	주임	2016.02.04
삼표산업	인재개발팀	김정웅	과장	2016.01.04
삼표산업	인재개발팀	조민규	대리	2016.01.11
삼표산업	인천물탈건설팀	홍민혁	사원	2016.03.02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송준표	과장	2016.01.06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박영준	사원	2016.02.01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양동래	사원	2016.01.06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윤경운	사원	2016.01.06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이민석	사원	2016.02.01
삼표산업	인천물탈공장건설팀	김호성	주임	2016.01.06
삼표산업	R/C부문 당진공장 영업과	이세진	대리	2016.03.01
삼표산업	풍납공장 관리과	임진영	주임	2016.03.17
삼표산업	풍납공장 관리과	황대규	주임	2016.02.01
삼표산업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김명수	계장	2016.03.16
삼표산업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조인철	계장	2016.02.16
삼표산업	화성물탈공장 생산팀	홍태환	사원	2016.03.04
삼표산업	환경안전팀	신진우	과장	2016.01.07
삼표산업	환경안전팀	정인영	과장	2016.03.21
신대원	삼척정비팀	이덕민	과장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강순열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김동희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김오길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김윤홍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김태호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김현길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김홍철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박병호	사원	2016.02.16
신대원	삼척정비팀	박성용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박중섭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신승일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신승희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심일도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안홍석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안희운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전상범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정기석	사원	2016.02.01
신대원	삼척정비팀	최용순	사원	2016.02.01
신대원	중기팀	유승권	과장	2016.03.21
신대원	화성사업소	한철규	계장	2016.03.14
신대원	화성정비	최현진	주임	2016.03.14
유니콘	충주공장 영업과	차성규	사원	2016.03.02
삼표피앤씨	FST제천공장 생산팀	송인섭	사원	2016.02.15
삼표피앤씨	FST제천공장 품질관리팀	박영호	사원	2016.02.15